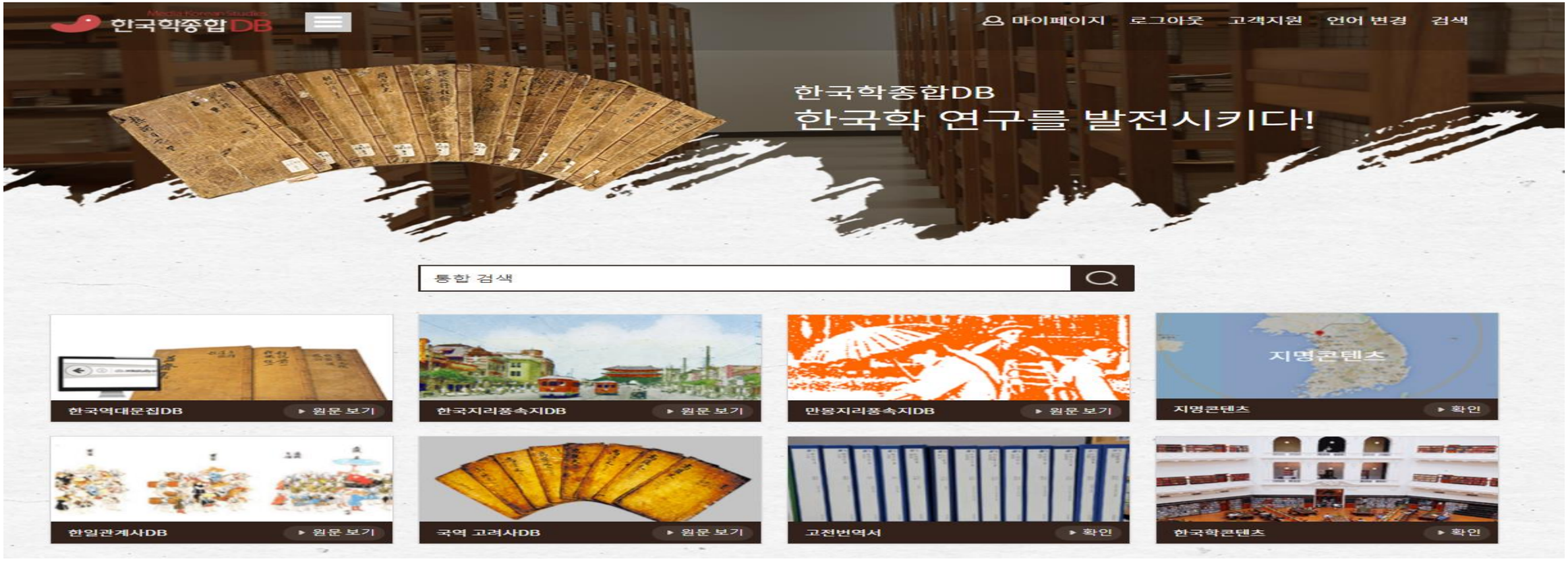
한국학 연구의 기본 콘텐츠
한국학종합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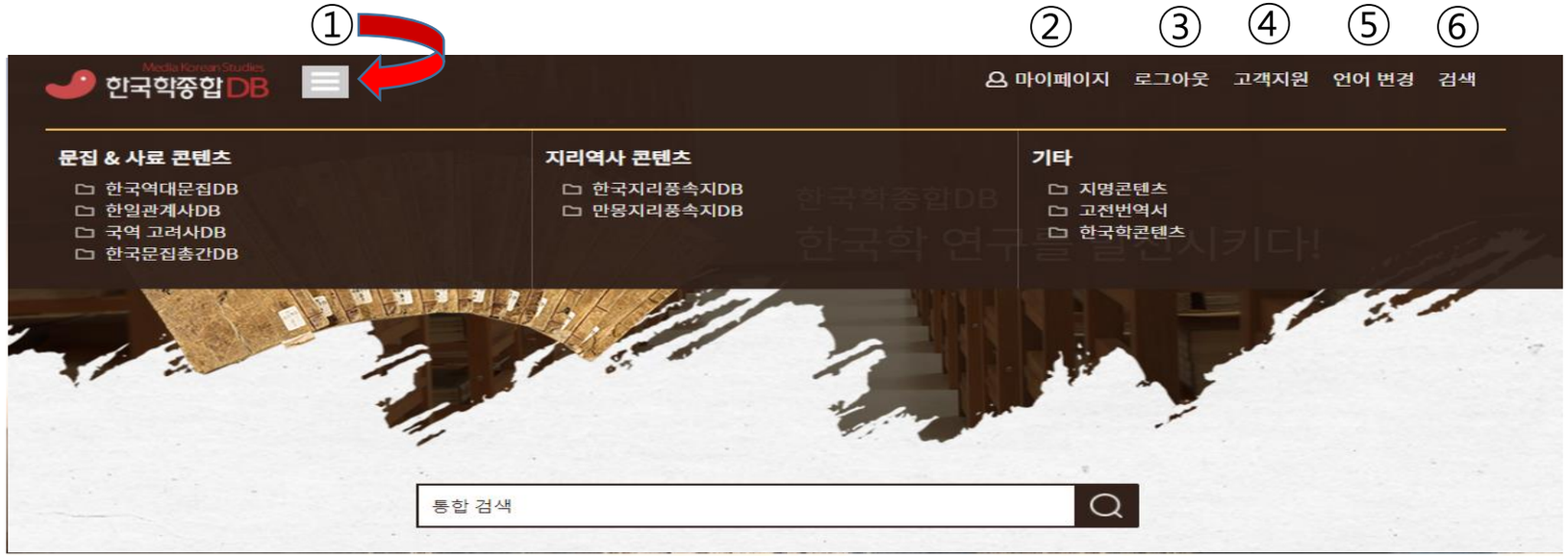
미디어한국학
MEDIA KOREAN STUDIES

1. 한국학종합DB 주요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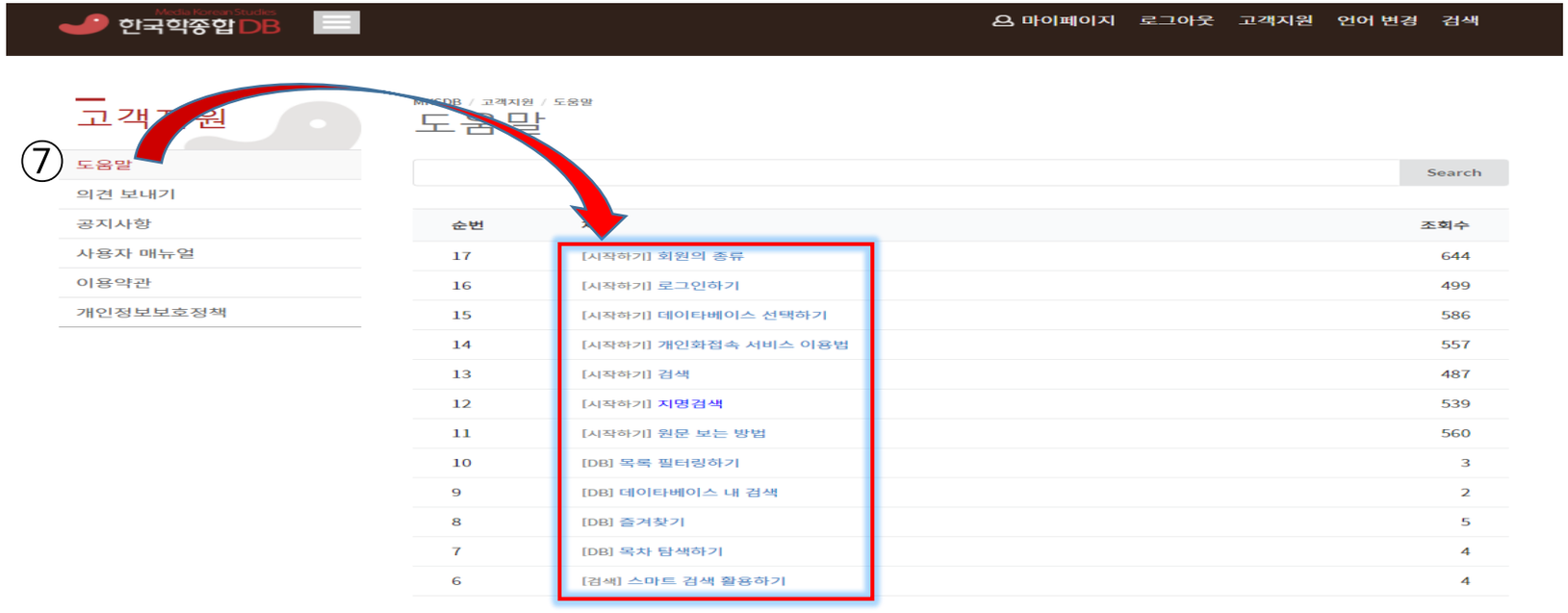
한국역대문집DB	**국내 최대 문집(文集) 시리즈 콘텐츠** 신라부터 근대까지 한국 문화의 총 결집으로 다양한 역사적 사건, 문화, 예술, 외교, 잡학 등의 문집 4,000여종을 구축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로서 한국 역사와 문화의 콘텐츠 보고라 할 수 있다. 특히 2018년도에는 **주요문집에 대한 한글번역본 연계서비스**와 2019년도에는 **문집 관련 선행연구**에 대하여 **국내 공공기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를 중심으로 학술논문의 원문(Full-text) 약 5천 건에** 대한 연계 서비스 시스템 구축으로 한국학을 연구하는 대학원생이나 학부생 등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한국지리풍속지DB	**한국 근대 한반도 연구의 기본 콘텐츠** 한국 근대 한반도의 역사, 풍속, 도시, 문화, 지리 등에 관한 연구 결과물을 구축한 콘텐츠로서 **한국 각 지방의 명승고적과 지방행정에 관한 중요한 자료와 사전통계 등**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각 지역의 유지와 명사들에 의해 편찬된 “지방지” 및 “지리지” 등에 관한 조사자료들은 한국의 근현대사 연구에 중요한 콘텐츠
국역고려사DB	**국내 최신 고려사 한글번역 콘텐츠** 고려시대 전분야에 걸친 선조들의 생활상이 기록되어 있어 고려의 시대상 전반을 알 수 있는 **고려사 한글번역 콘텐츠로서 2012년 완료되었다. 특히 원문이미지와 텍스트버전 등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최신 고려사 연구성과들이 풍부한 주석으로 원문의 이해도를 높여 고려사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초적인 콘텐츠
한일관계사DB	**한일관계 2천년 간 사료를 집대성한 한글번역 콘텐츠** 삼국시대부터 개항기까지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고려사절요, 조선왕조실록 등에 기록된 약 2만 여건의 **한일관련 사료를 원문 발췌하여 연대순으로 원문이미지를 한글로 번역한 사료집으로서** 한일관계사의 역사적 규명을 위한 귀중한 콘텐츠
만몽지리풍속지DB	**100년 전 만주와 몽골의 역사, 문화 콘텐츠** 중국의 동북지방 인 **만주와 몽고의 산업, 무역, 외교, 민족, 역사 등을 실증적 조사를** 거쳐 당시의 사정을 현재와 비교 연구할 수 있는 사료로서 만주와 몽고의 적나라한 당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들 두 나라의 참된 모습과 **國境風物 등 文化地帶**를 재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콘텐츠

2. 기본 메뉴

A



B



① **데이터베이스 :** (A화면 팝업)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마이페이지 :** 개인화서비스 설정, 프로필, 비밀번호 변경하기, 이메일 변경하기, 회원탈퇴 등을 선택하여 설정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로그인/로그아웃 :** 로그인 및 로그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지원 :** (B화면 팝업) 클릭하면 도움말 화면으로 이동하면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⑤ **언어 변경 :** 언어변경 화면에서 한국어, 영어, 간체중어, 번체중어 등 4개 언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⑥ **검색 :** 통합검색 폼이 팝업 됩니다.

⑦ **도움말 :** 회원의 종류, 로그인 안내, 데이터베이스 선택하기, 개인화접속 서비스 이용법, 검색, 지명검색, 원문 보는 방법 등을 알 수 있다.

3-1. 한국학종합DB _통합검색(기본검색)



① **데이터베이스 선택 :** 검색 결과를 특정 데이터베이스로 한정할 경우 체크하고 적용합니다.

② **검색어 :** 검색어를 입력하고 Enter를 누르거나 검색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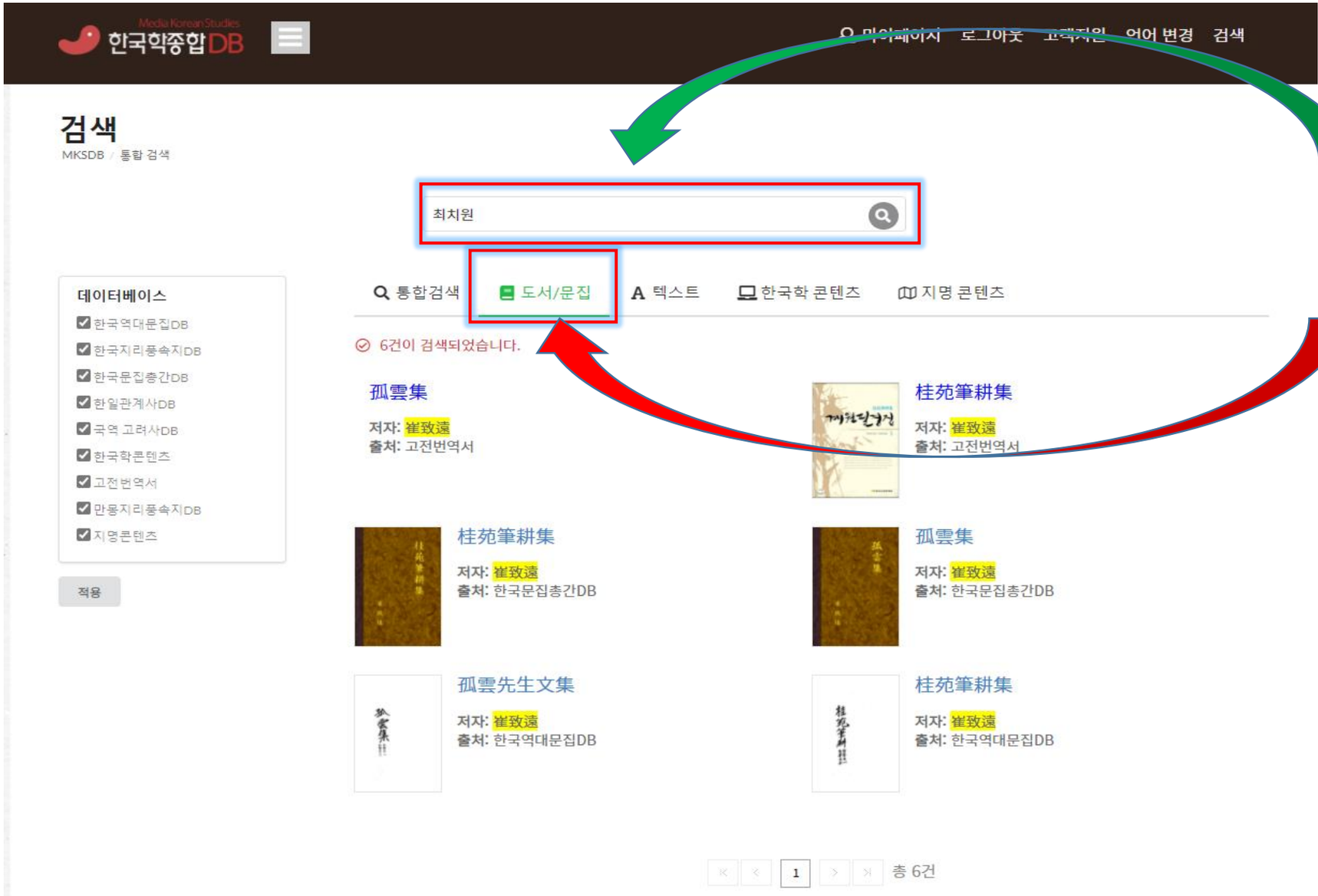
③ **검색 유형 탭 :** 도서/문집, 텍스트, 한국학 콘텐츠 등 각 탭을 클릭하여 검색 유형별로 페이징하여 볼 수 있습니다.

④ **상세정보 이동 :** 결과의 제목을 클릭하여 상세정보나 원문의 특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⑤ **모두 보기 :** 검색 유형을 페이징하여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⑥ **지명 콘텐츠 :** 클릭하면 지명으로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2. 한국학종합DB – 통합검색(도서/문집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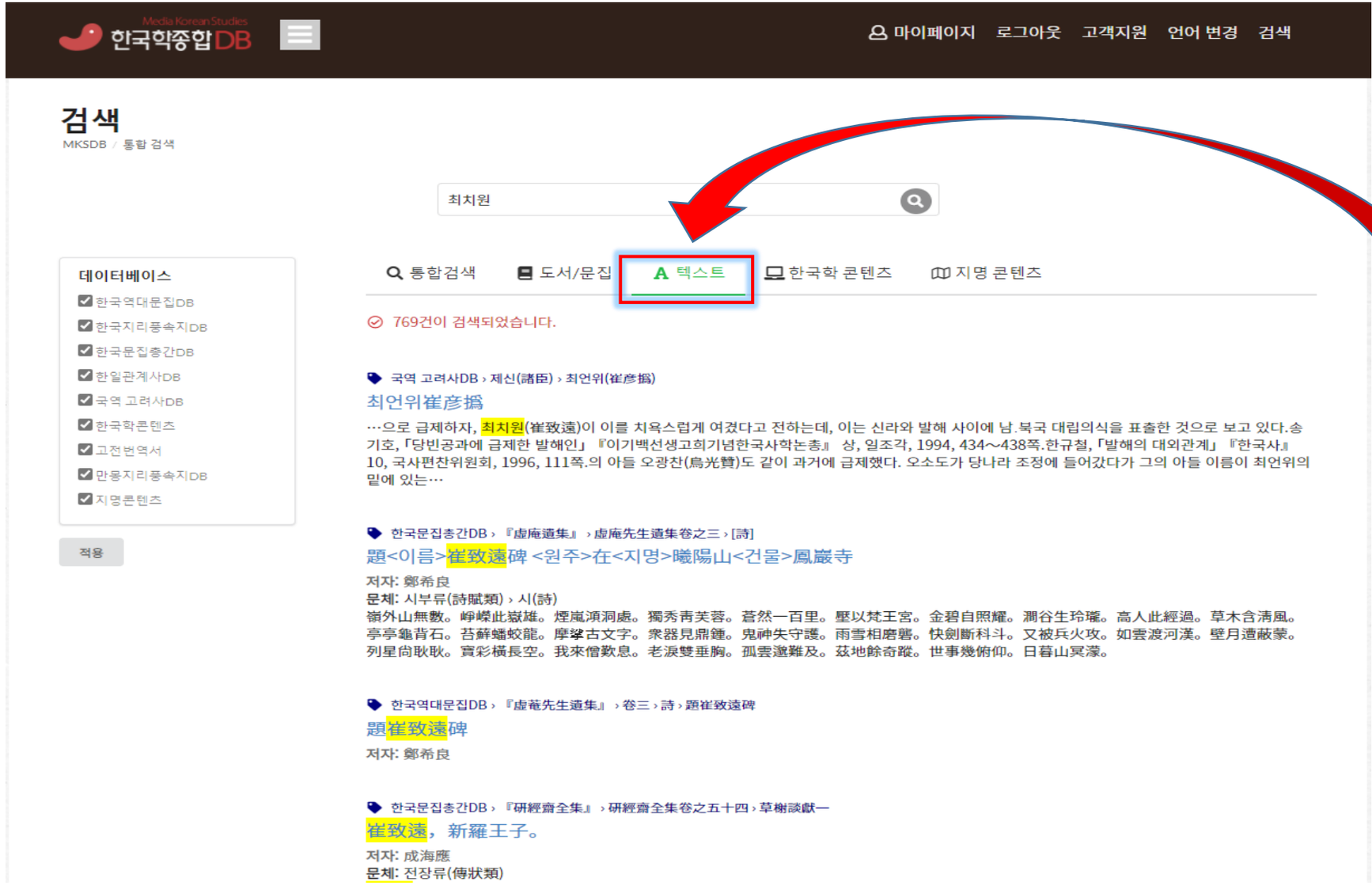
① 통합검색에서 키워드로 최치원을 검색하여 도서/문집을 클릭한 화면입니다.

② 도서/문집 검색은 한국역대문집DB, 한국문집총간DB, 고전번역서DB 등에서 입력한 키워드와 관련된 콘텐츠가 검색됩니다.

③ 연결 정보 :

- 연결된 콘텐츠는 한국학종합DB에서 제공하는 링크입니다.

3-3. 한국학종합DB – 통합검색(텍스트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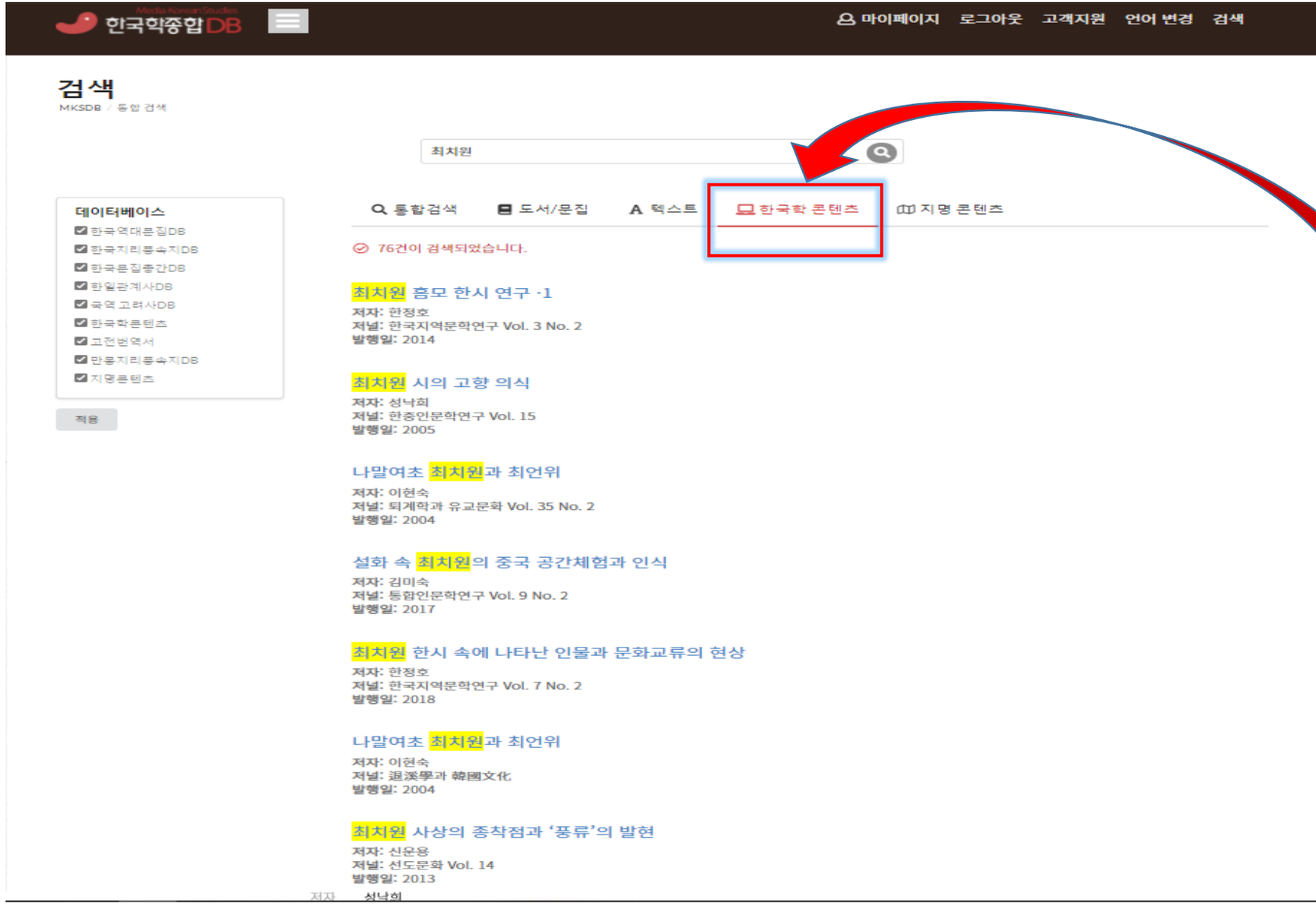
① 통합검색에서 키워드로 최치원을 검색하여 텍스트를 클릭한 화면입니다.

② 텍스트 검색은 한국문집총간DB와 국역고려사DB 등에서 입력한 키워드와 관련된 목차와 내용에서 검색되지만 한국역대문집DB, 한국지리풍속지DB, 한일관계사료집성DB 등은 목차에서만 검색됩니다.

③ 연결 정보 :

- 연결된 콘텐츠는 한국학종합DB에서 제공하는 링크입니다.

3-4. 한국학종합DB – 통합검색(한국학 콘텐츠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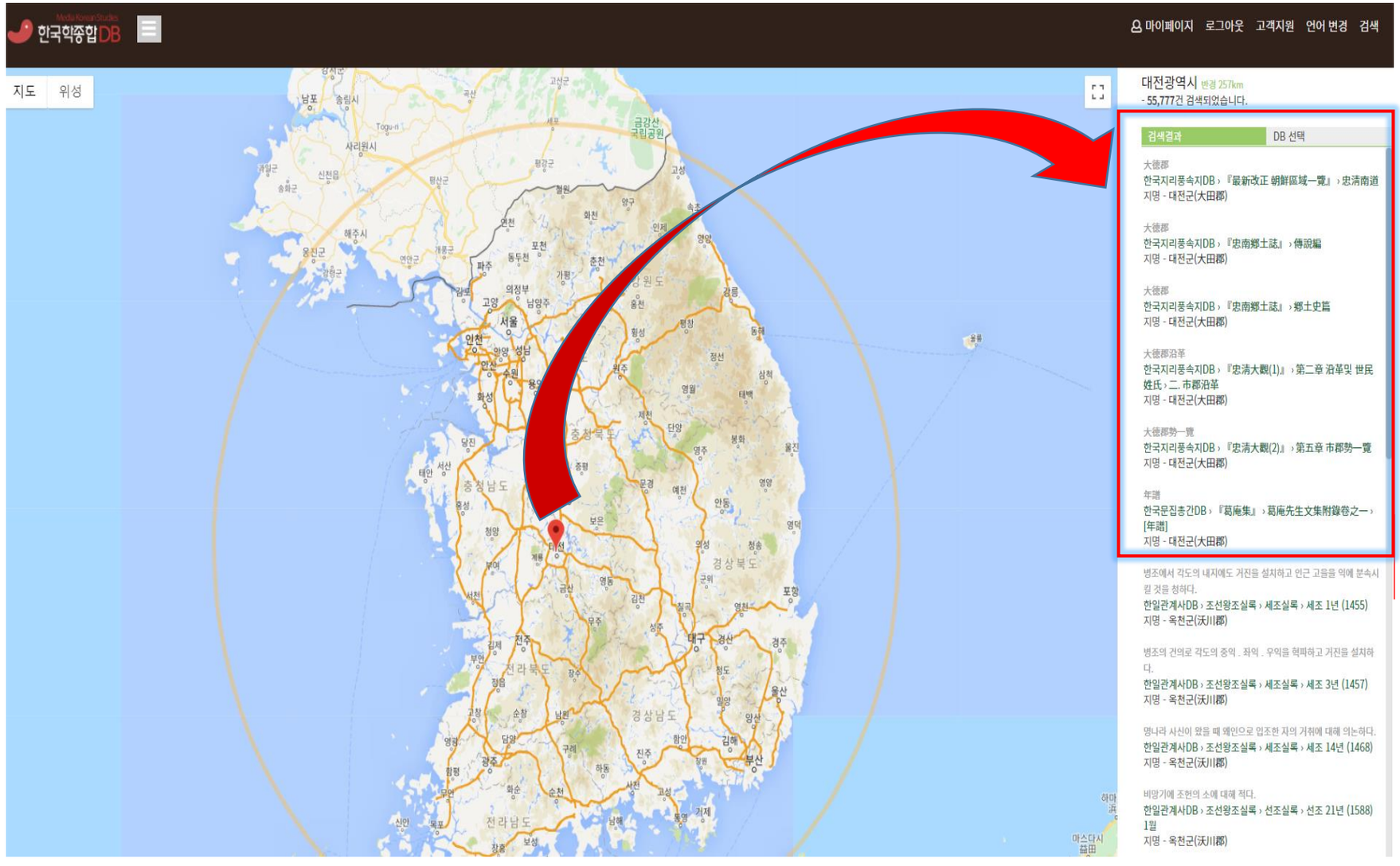
① 통합검색에서 키워드로 최치원을 검색하여 한국학 콘텐츠를 클릭한 화면입니다.

② 한국학 콘텐츠는 한국역대문집DB, 한국지리풍속지DB, 국역고려사DB, 한일관계사DB, 만몽지리풍속지DB 등에 한국학 관련 학술논문을 연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국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를 중심으로 원문(Full-text) 약 16,766건에 대한 연계 서비스하는 것 입니다.

③ 연결 정보 :

- 연결된 콘텐츠는 한국학종합DB에서 제공하는 링크입니다.

3-5. 한국학종합DB_ 통합검색(지명 콘텐츠 검색)



① 지역 선택: 지도를 확대 축소 또는 이동하여 검색 지역을 한정합니다. 중심 지점을 기준으로 해당 지명을 클릭하면 검색 결과를 우측에 보여줍니다.

② DB선택: 검색 결과를 특정 데이터베이스로 한정할 경우 체크하고 적용합니다.

✓ 지명은 군 단위로 검색 가능합니다.
✓ 군의 명칭은 일제 강점기의 행정 구역을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4-1. 한국역대문집DB _브라우징(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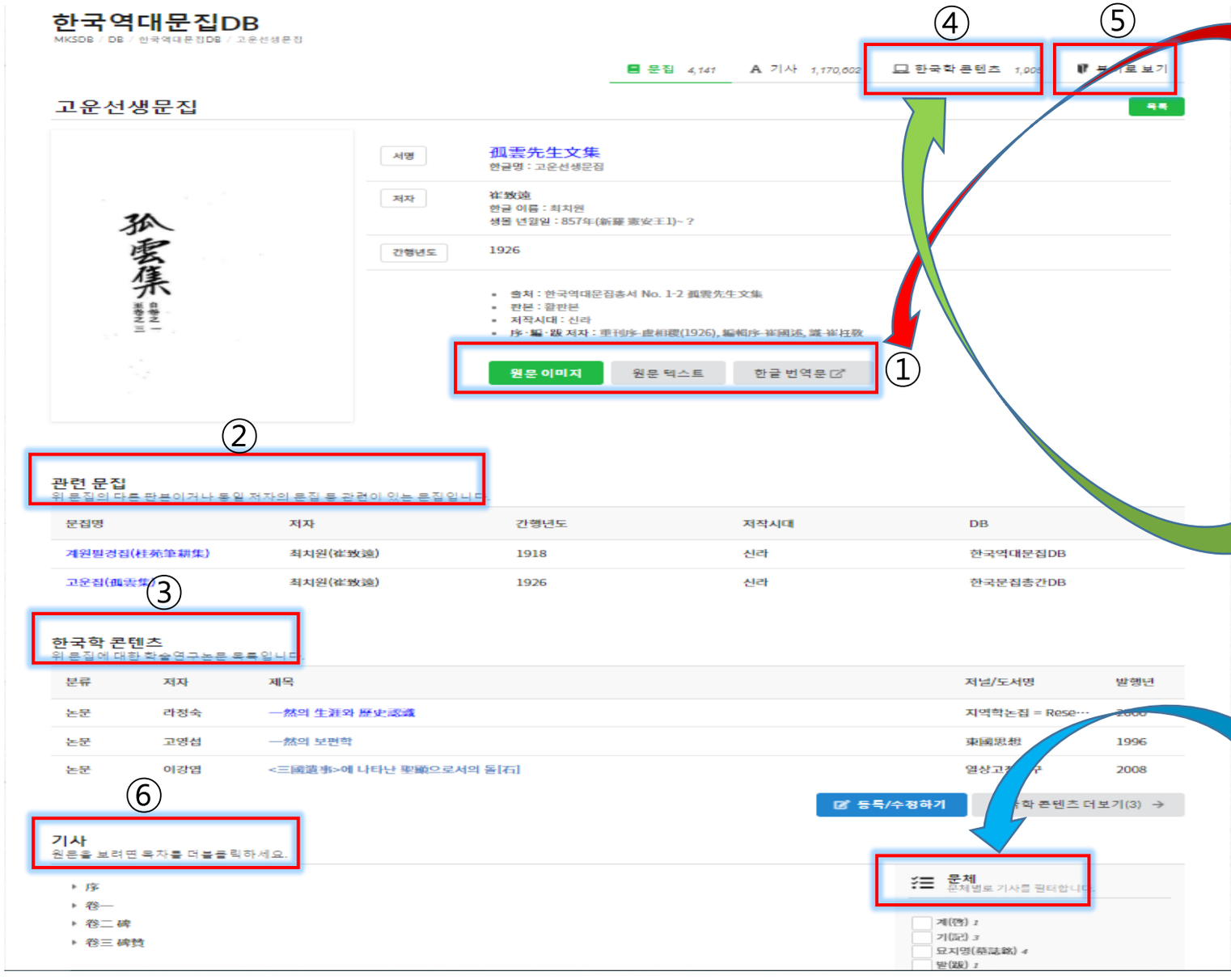
① **문집/기사/한국학 콘텐츠 보기**

- **문집 :** 문집 단위로 목록을 *보여줍니다.*
- **기사 :** 기사(목차) 단위로 보여줍니다.
- **한국학 콘텐츠 :** 한국역대문집DB의 각종 문집에 관련된 학술논문을 국내 공공기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를 중심으로 원문(Full-text) 약 16,776건에 대한 연계 서비스 입니다.

② **정렬 :** 문집명순과 저자명순을 클릭하여 가나다순으로 정렬할 수 있으며, 간행년을 클릭하면 시대순으로 정렬됩니다. 또한 조회순->최근출판순 으로 정렬됩니다.

③ **필터 :** 목록을 시대별, 판종유형 등을 선택하여 적용을 클릭하면 필터가 반영된 목록을 가져옵니다.

4-2. 한국역대문집DB _상세정보



① **각종 버튼 :**

- 원문 이미지: 원문 뷰어로 이동합니다
- 원문 텍스트 : 한글 번역본으로 연동됩니다.
- 한글 번역본 : 한글 번역본이 있는 경우 한국고전번역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② **관련 문집:** 관련된 문집 목록입니다. 총서 내 동일 묶음이나 동일 저자인 경우 관련 문집으로 분류합니다.

③ **한국학 콘텐츠 :** 현재 문집과 연동된 한국학 콘텐츠 최대 5건을 보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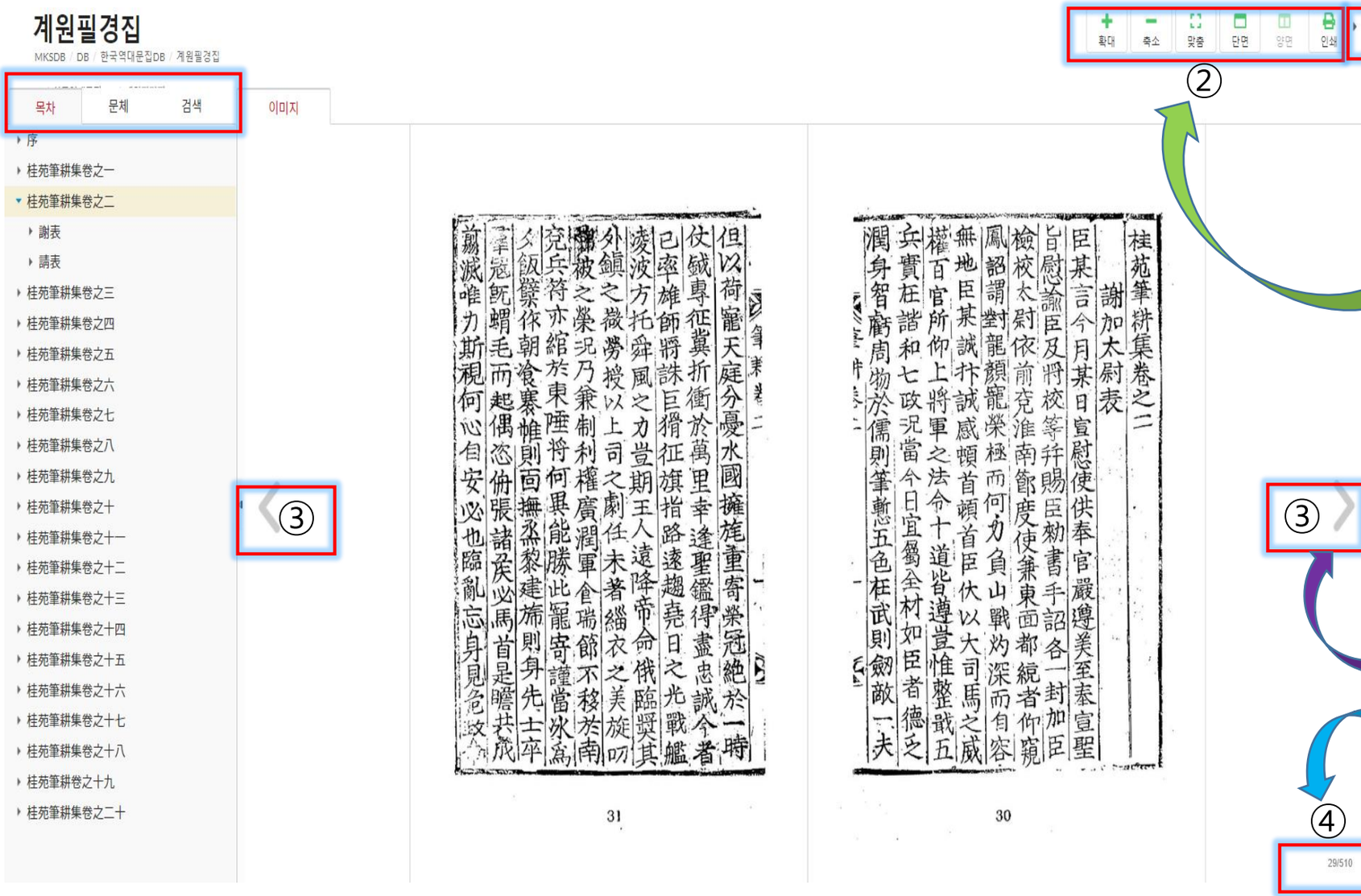
④ **이 문집의 한국학 콘텐츠 보기 :** 클릭하여 한국학 콘텐츠 전체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⑤ **뷰어로 보기 :** 원문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⑥ **기사 :** 확장/클릭하여 해당 원문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⑦ **문체 :** 선택하여 적용하면 해당 문체의 목차가 필터링 됩니다.

4-3. 한국역대문집DB - 원문이미지



① **도구 보기 :** 도구모음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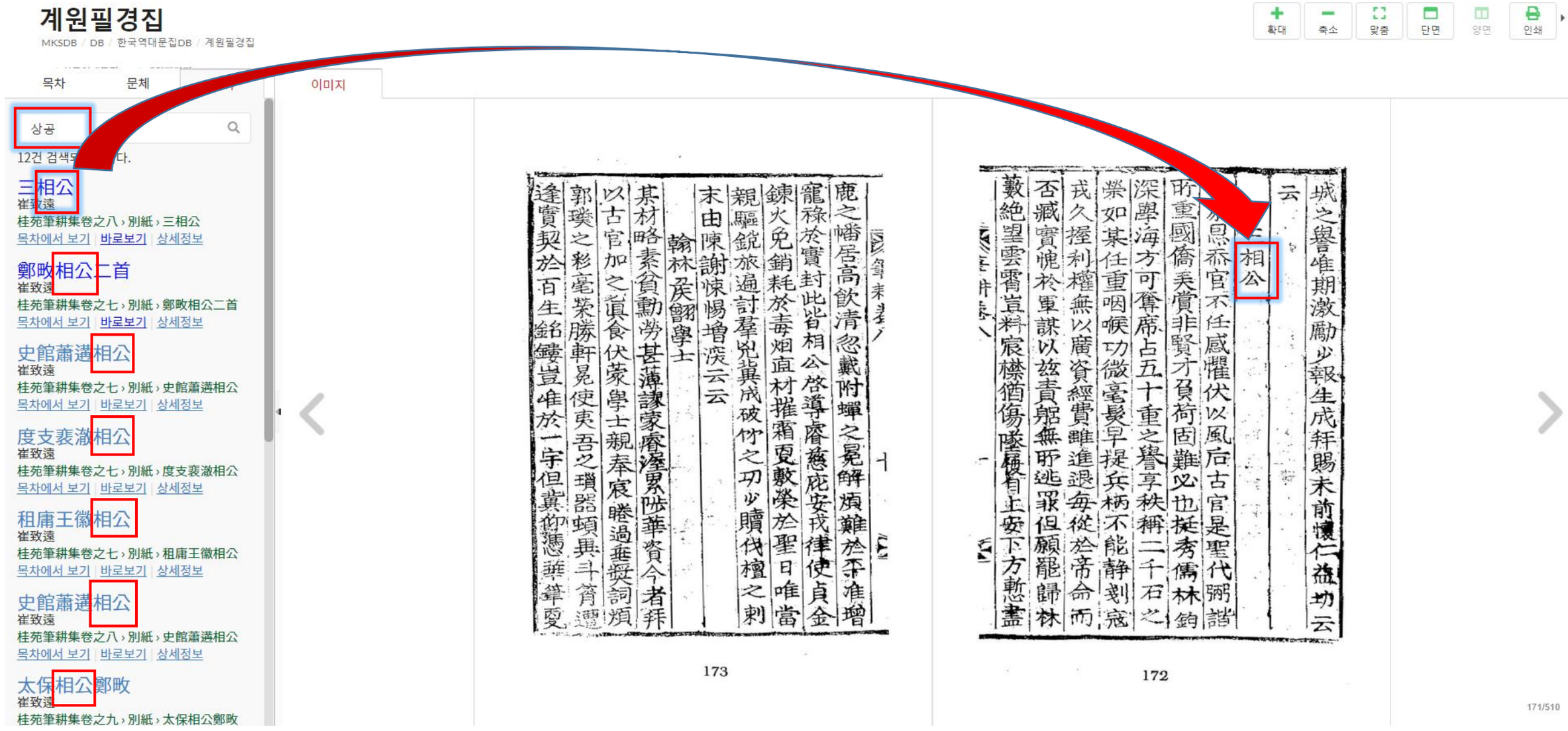
② **도구:**
- **확대/축소/맞춤 :** 각각 한 페이지, 두 페이지, 화면에 맞춤으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단면 보기/양면 보기 :** 한 페이지 또는 두 페이지씩 볼 수 있습니다.
- **인쇄 :** 화면에 보이는 한페이지를 인쇄합니다.
- **기본 화면 :** 원문 뷰어 영역을 늘이거나 줄입니다.

③ **페이지 이동:** 고서의 제책 방법에 따라 우측 또는 좌측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④ **페이지:** 총 페이지 정보입니다.

⑤ **탭 제목:** 목차, 문체 등의 방법으로 원문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4-4. 한국역대문집DB _ 원문이미지 (키워드 검색)



4-5. 한국역대문집DB _ 원문이미지 (문체검색)

계원필경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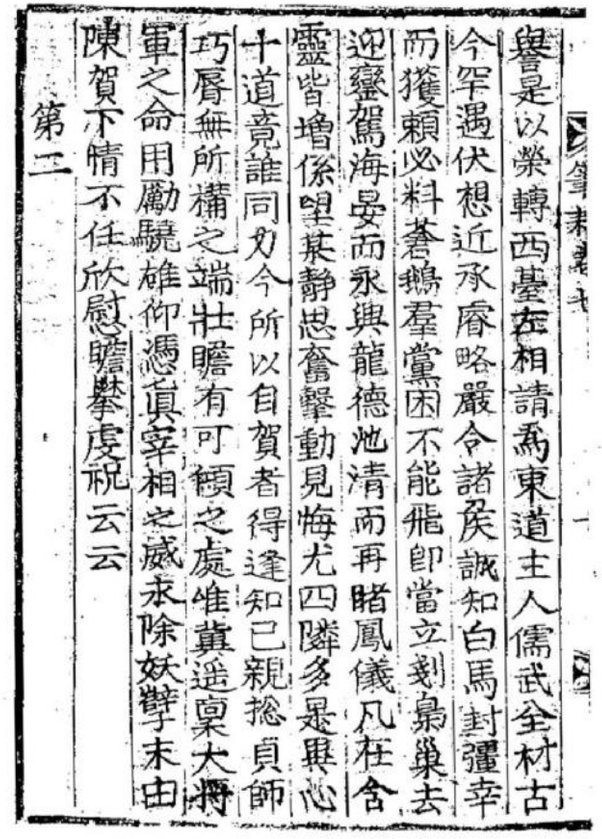
MKSDB / DB / 한국역대문집DB / 계원필경집

확대 축소 맞춤 단면 양면 인쇄

목차 | 문체(4) | 검색 | 이미지

- [x] 계(啓) 5
- [ ] 기(記) 2
- [x] 서(序) 1
- [x] 서(書) 99
- [x] 소(疏) 2
- [x] 시(詩) 27
- [ ] 이문(移文) 50
- [ ] 장(狀) 69
- [ ] 재사(齋詞) 11
- [ ] 제문(祭文) 5
- [ ] 표(表)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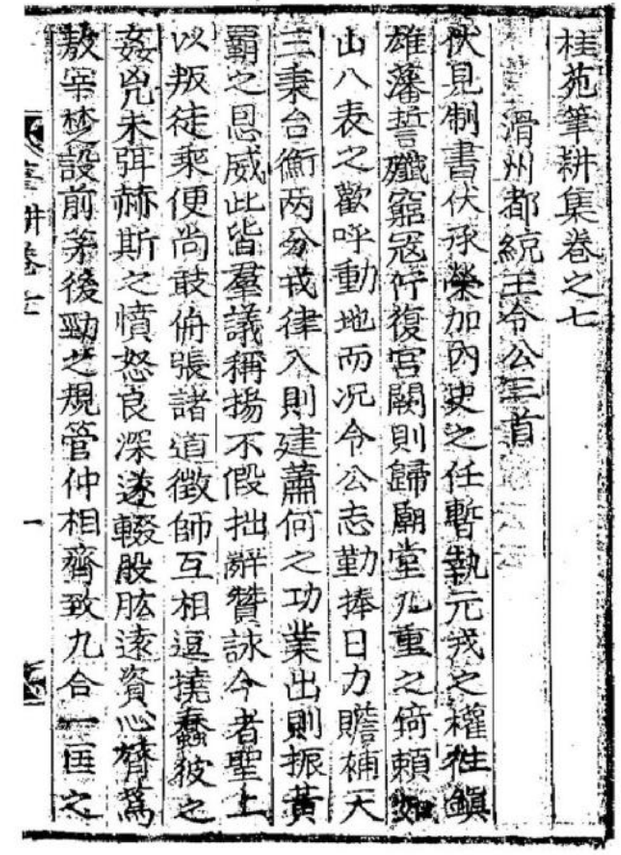
적용



譽是以榮轉西臺左相請爲東道主人儒武全材古
今罕遇伏想近承眷略嚴令諸侯誠知白馬封疆幸
而獲賴必料蒼鵝羣黨困不能飛卽當立剗梟巢去
迎鑾駕海晏而永與龍德池清而再睹鳳儀凡在含
靈皆增係望某靜思奮擊動見悔尤四隣多是異心
十道竟誰同力今所以自賀者得逢知己親捻貝師
巧脣無所措之端壯瞻有可頼之處唯冀遥稟大將
軍之命用勵驍雄仰憑眞宰相之威永除妖孽末由
陳賀下情不任欣慰瞻擧虔祝云云

第二

129



桂苑筆耕集卷之七

滑州都統王令公三首

伏見制書伏承榮加內史之任暫執元戎之權往鎭
雄藩職窮寇攻行復宮闕則歸廟堂九重之倚賴如
山八表之歡呼動地而況令公志勤捧日力贍補天
三秉台衡兩分戎律入則建蕭何之功業出則振黃
霸之恩威此皆羣議稱揚不假拙辭贊詠今者聖上
以叛徒乘便尚敢倘張諸道徵師互相逗撓蠢彼之
妄兇未殫赫斯之憤怒良深遂輟殷肱遠資心膂蕩
欵寧梦設前茅後勁之規管仲相齊致九合一匡之

128

127/510

4-6. 한국역대문집DB _ 원문이미지 (문체검색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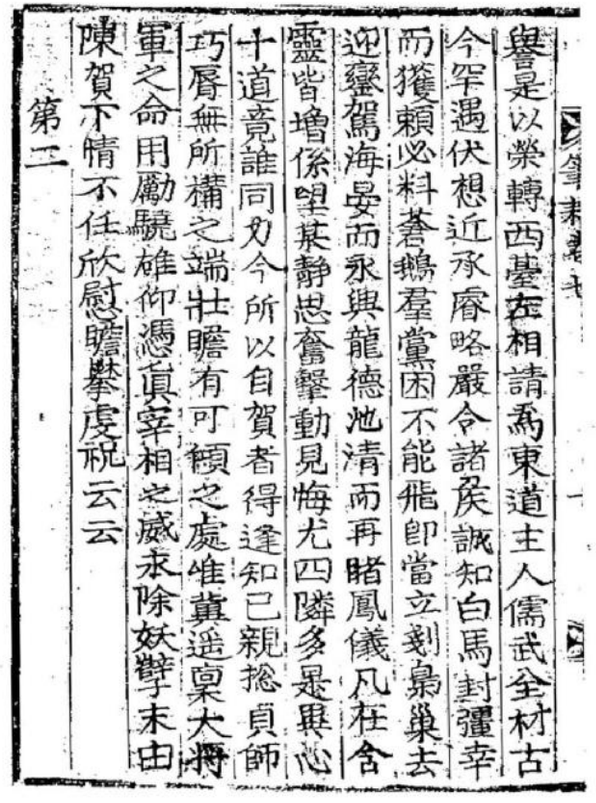
계원필경집

MKSDB / DB / 한국역대문집DB / 계원필경집

확대 축소 맞춤 단면 양면 인쇄

목차 | 문체(4) | 검색 |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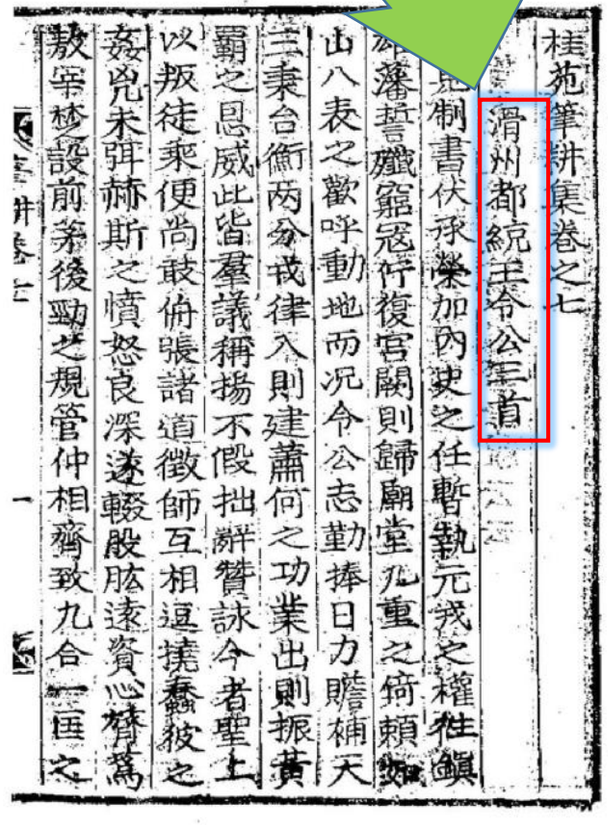
- 序
  - 桂苑筆耕集序
- 桂苑筆耕集卷之一
- 桂苑筆耕集卷之二
- 桂苑筆耕集卷之三
- 桂苑筆耕集卷之四
- 桂苑筆耕集卷之五
- 桂苑筆耕集卷之六
- 桂苑筆耕集卷之七
  - 別紙
    - 滑州都統王令公三首
    - 鄭畋相公二首
    - 史館蕭遘相公
    - 度支裴澈相公
    - 租庸王徽相公
    - 前太原鄭從讜尚書
    - 禮部夏侯潭侍郎
    - 吏部裴瓚尚書二首
    - 宣歙裴虔餘尚書二首
    - 鹽鐵李都相公二首
    - 盧紹給事
    - 壁州鄭凝績尚書
    - 泗州鄭庾常侍
    - 湖州杜孺休常侍
- 桂苑筆耕集卷之八



譽是以榮轉西臺左相請爲東道主人儒武全材古今罕遇伏想近承眷略嚴令諸戾誠知白馬封疆幸而獲賴必料蒼鵝羣黨困不能飛即當立剋梟巢去迎鑾駕海晏而永與龍德池清而再睹鳳儀凡在含靈皆增係望某靜思奮擊動見悔尤四隣多是異心十道竟誰同力今所以自賀者得逢知己親捻貝師巧屑無所補之端壯瞻有可賴之處惟冀遥稟大將軍之命用勵驍雄仰憑貞宰相之威永除妖孽末由陳賀下情不任欣慰瞻擧虔祝云云

第二

129



桂苑筆耕集卷之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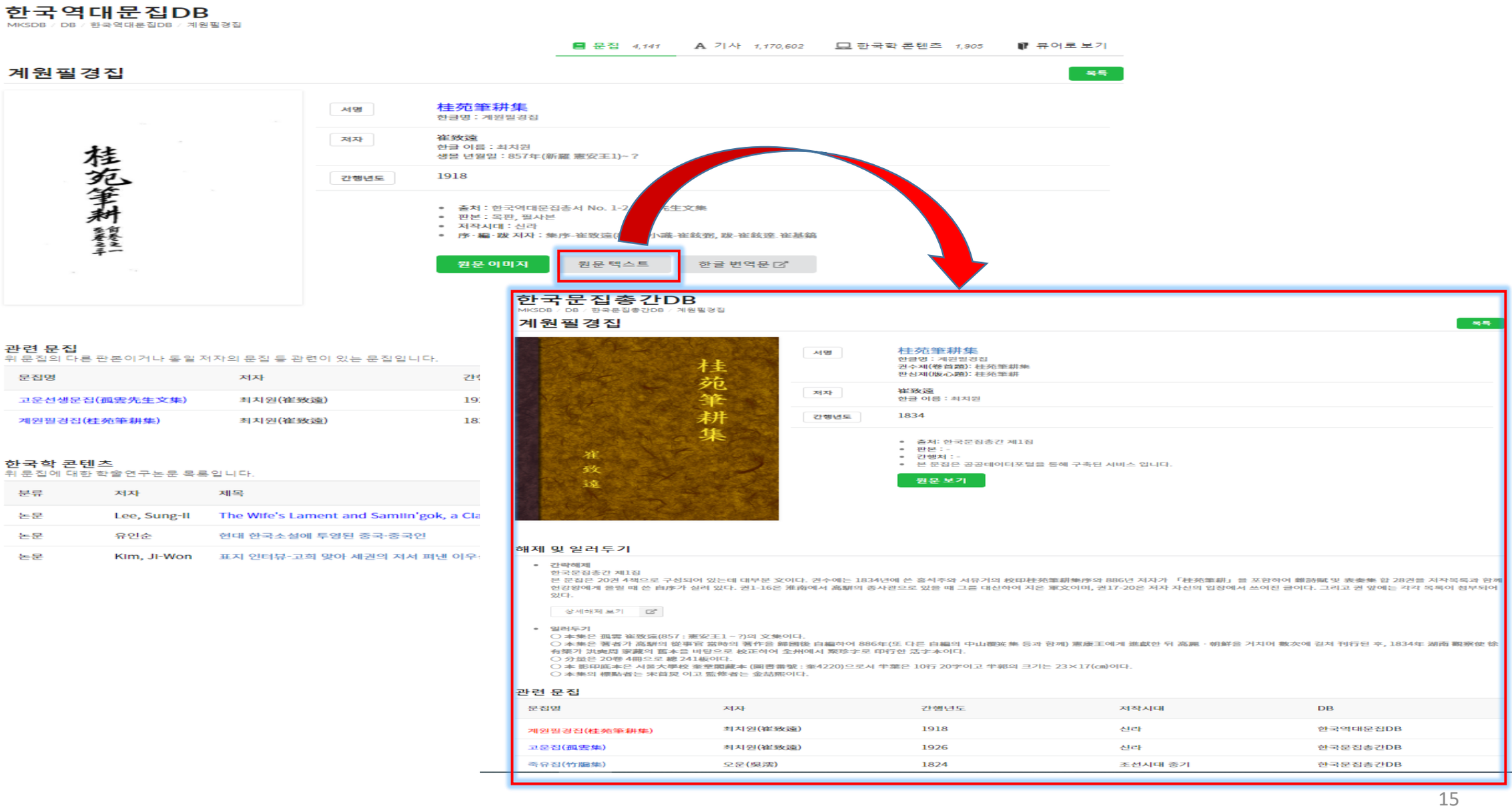
滑州都統王令公三首

制書伏承榮加內史之任暫執元戎之權往鎮藩誓殲窮寇旋復宮闕則歸廟堂九重之倚賴山八表之歡呼動地而況令公志勤捧日力贍補天三秉台衡兩分戎律入則建蕭何之功業出則振黃霸之恩威此皆羣議稱揚不假拙辭贊詠今者聖上以叛徒乘便尚敢俯賑諸道徵師互相逗撓蠢彼之妄兇未弭赫斯之憤怒良深遂輟殷肱遠資心膂駕敎宰夢設前弟後動之規管仲相齊致九合一匡之

128

127/510

4-7. 한국역대문집DB_ 원문텍스트 검색



4-8. 한국역대문집DB_ 원문텍스트 검색결과



4-9. 한국역대문집DB_ 한글번역본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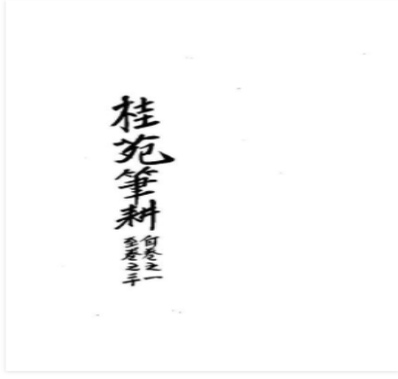
한국역대문집DB

MKSDB / DB / 한국역대문집DB / 계원필경집

문집 4,141 | 기사 1,170,602 | 한국학 콘텐츠 1,905 | 뷰어로 보기

계원필경집

목록



서명 桂苑筆耕集
한글명 : 계원필경집

저자 崔致遠
한글 이름 : 최치원
생몰 년월일 : 857年(新羅 憲安王1)~ ?

간행년도 1918

- 출처 : 한국역대문집총서 No. 1-2 孤雲先生文集
- 판본 : 목판, 필사본
- 저작시대 : 신라
- 序·編·跋 저자 : 集序-崔致遠(886), 小識-崔鉉弼, 跋-崔[illegible]崔基鎬

원문 이미지 | 원문 텍스트 | 한글 번역문

관련 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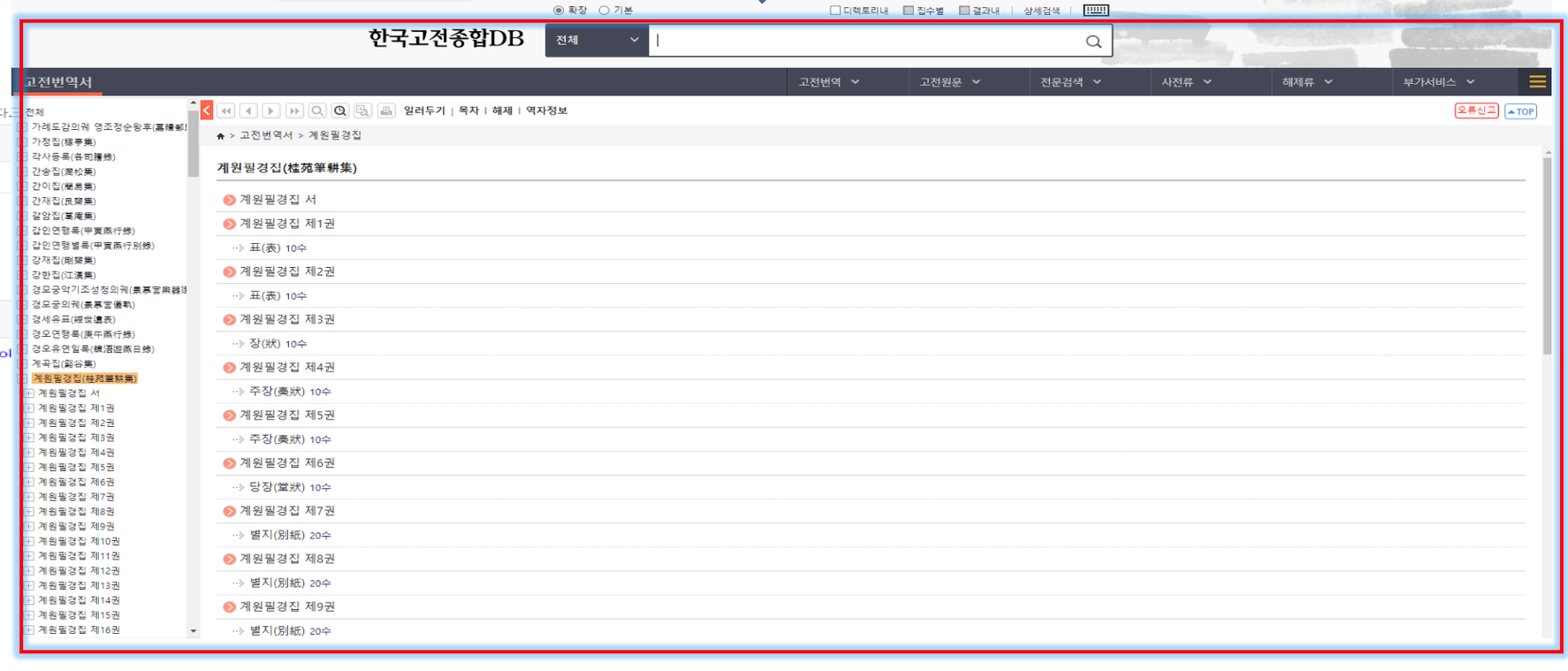
위 문집의 다른 판본이거나 동일 저자의 문집 등 관련이 있는 문집입니다.

문집명	저자
고운선생문집(孤雲先生文集)	최치원(崔致遠)
계원필경집(桂苑筆耕集)	최치원(崔致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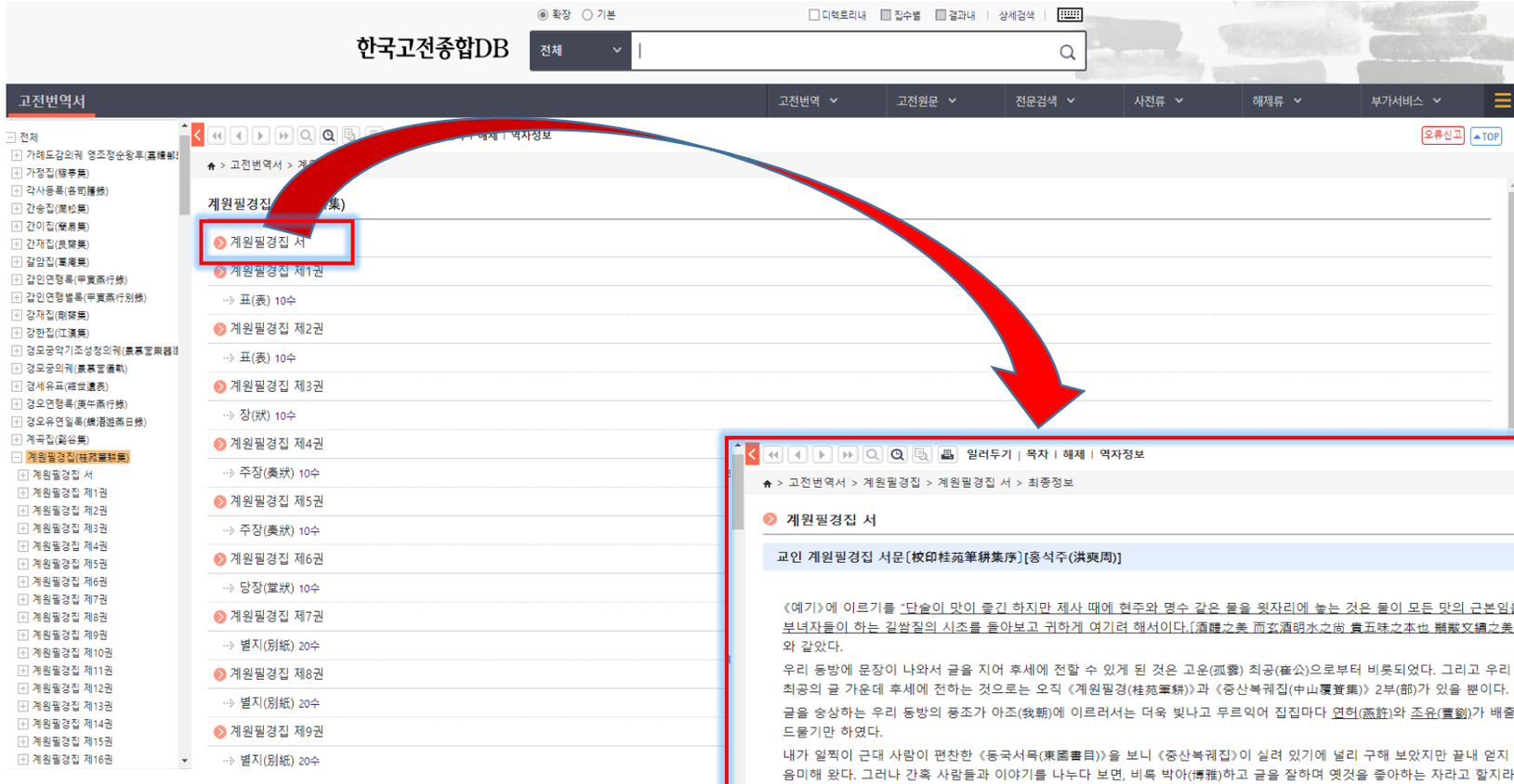
한국학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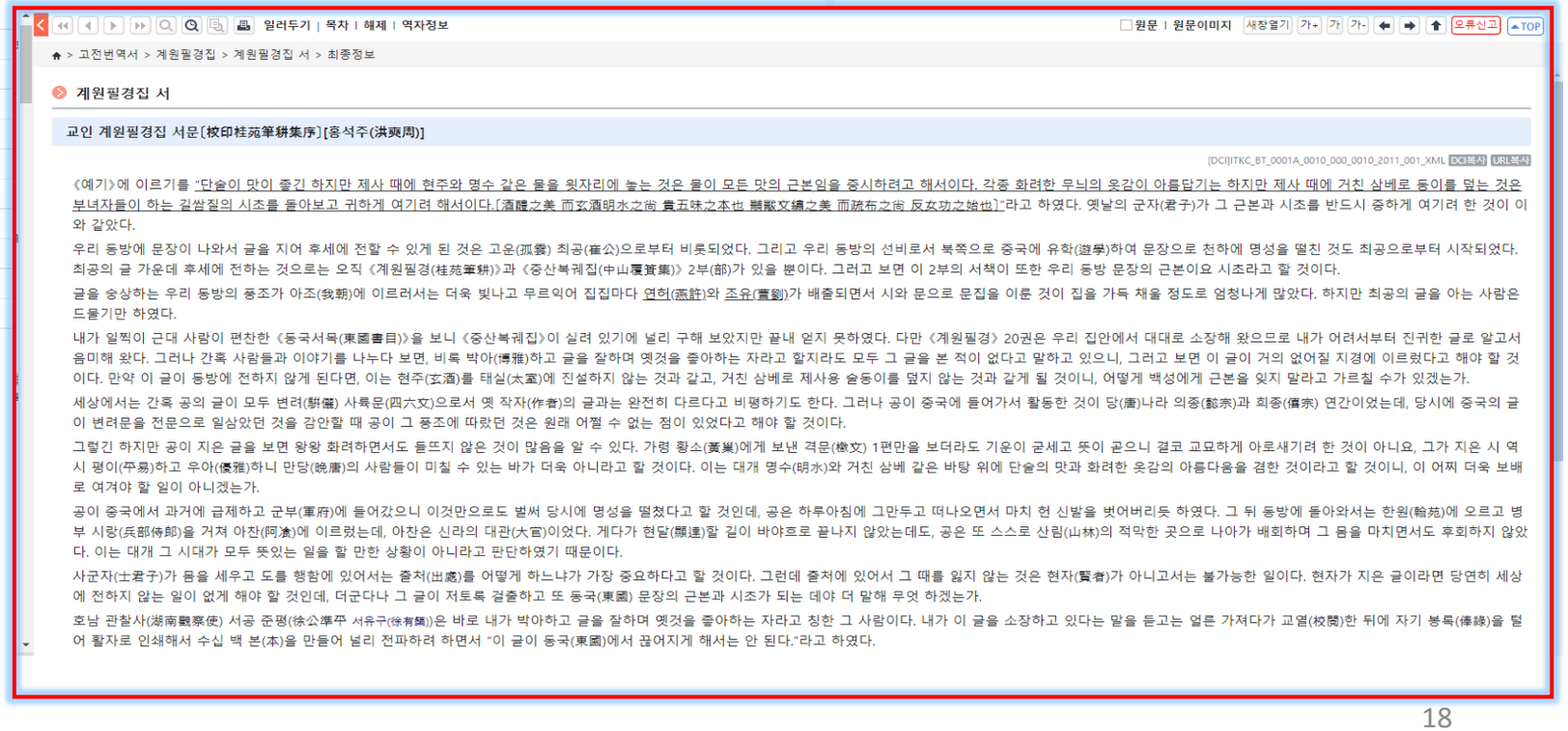
위 문집에 대한 학술연구논문 목록입니다.

분류	저자	제목
논문	Lee, Sung-Il	The Wife's Lament and Samiin'gol



4-10. 한국역대문집DB_ 한글번역문 검색결과





고전번역서 > 계원필경집 > 계원필경집 서 > 최종정보

계원필경집 서

교인 계원필경집 서문[校印桂苑筆耕集序][홍석주(洪奭周)]

《예기》에 이르기를 "단술이 맛이 좋긴 하지만 제사 때에 현주와 명수 같은 물을 윗자리에 놓는 것은 물이 모든 맛의 근본임을 중시하려고 해서이다. 각종 화려한 무늬의 옷감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제사 때에 거친 삼베로 동이를 덮는 것은 부녀자들이 하는 길쌈질의 시초를 돌아보고 귀하게 여기려 해서이다.[酒醴之美 而玄酒明水之尙 黼五味之本也 黻黼文繡之美 而疏布之尙 反女功之始也]"라고 하였다. 옛날의 군자(君子)가 그 근본과 시초를 반드시 중하게 여기려 한 것이 이와 같았다.

우리 동방에 문장이 나와서 글을 지어 후세에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고운(孤雲) 최공(崔公)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리고 우리 동방의 선비로서 북쪽으로 중국에 유학(遊學)하여 문장으로 천하에 명성을 떨친 것도 최공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최공의 글 가운데 후세에 전하는 것으로는 오직 《계원필경(桂苑筆耕)》과 《중산복궤집(中山覆簣集)》 2부(部)가 있을 뿐이다. 그러고 보면 이 2부의 서책이 또한 우리 동방 문장의 근본이요 시초라고 할 것이다.

글을 숭상하는 우리 동방의 풍조가 아조(我朝)에 이르러서는 더욱 빛나고 무르익어 집집마다 연허(燕許)와 조유(晁劉)가 배출되면서 시와 문으로 문집을 이룬 것이 집을 가득 채울 정도로 엄청나게 많았다. 하지만 최공의 글을 아는 사람은 드물기만 하였다.

내가 일찍이 근대 사람이 편찬한 《동국서목(東國書目)》을 보니 《중산복궤집》이 실려 있기에 널리 구해 보았지만 끝내 얻지 못하였다. 다만 《계원필경》 20권은 우리 집안에서 대대로 소장해 왔으므로 내가 어려서부터 진귀한 글로 알고서 음미해 왔다. 그러나 간혹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비록 박아(博雅)하고 글을 잘하며 옛것을 좋아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모두 그 글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니, 그러고 보면 이 글이 거의 없어질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 글이 동방에 전하지 않게 된다면, 이는 현주(玄酒)를 태실(太室)에 진설하지 않는 것과 같고, 거친 삼베로 제사용 술동이를 덮지 않는 것과 같게 될 것이니, 어떻게 백성에게 근본을 잊지 말라고 가르칠 수가 있겠는가.

세상에서는 간혹 공의 글이 모두 변려(騈儷) 사륙문(四六文)으로서 옛 작자(作者)의 글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비평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이 중국에 들어가서 활동한 것이 당(唐)나라 의종(懿宗)과 희종(僖宗) 연간이었는데, 당시에 중국의 글이 변려문을 전문으로 일삼았던 것을 감안할 때 공이 그 풍조에 따랐던 것은 원래 어쩔 수 없는 점이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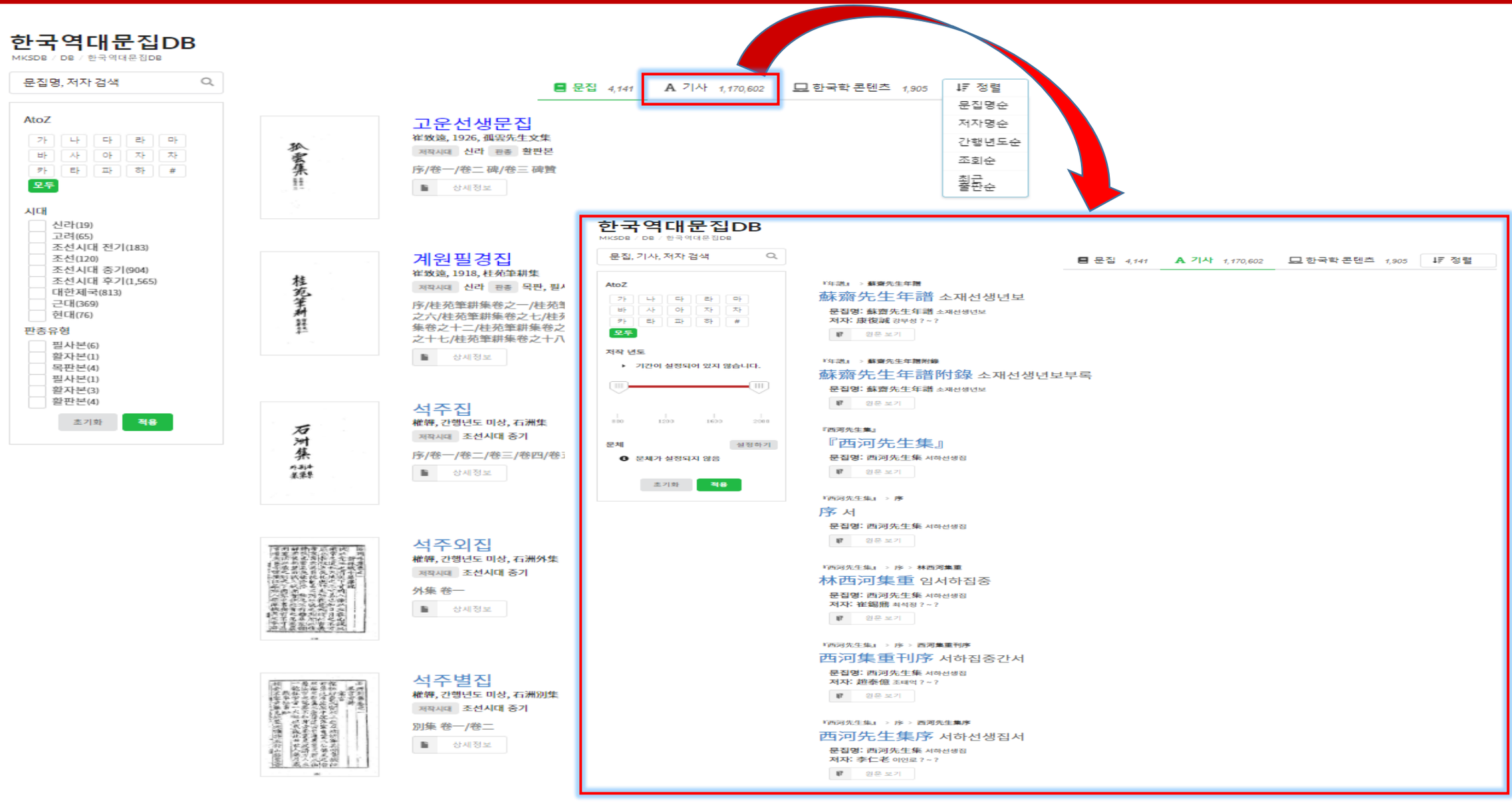
그렇긴 하지만 공이 지은 글을 보면 왕왕 화려하면서도 들뜨지 않은 것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가령 황소(黃巢)에게 보낸 격문(檄文) 1편만을 보더라도 기운이 굳세고 뜻이 곧으니 결코 교묘하게 아로새기려 한 것이 아니요, 그가 지은 시 역시 평이(平易)하고 우아(優雅)하니 만당(晩唐)의 사람들이 미칠 수 있는 바가 더욱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는 대개 명수(明水)와 거친 삼베 같은 바탕 위에 단술의 맛과 화려한 옷감의 아름다움을 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 어찌 더욱 보배로 여겨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공이 중국에서 과거에 급제하고 군부(軍府)에 들어갔으니 이것만으로도 벌써 당시에 명성을 떨쳤다고 할 것인데, 공은 하루아침에 그만두고 떠나오면서 마치 헌 신발을 벗어버리듯 하였다. 그 뒤 동방에 돌아와서는 한원(翰苑)에 오르고 병부 시랑(兵部侍郎)을 거쳐 아찬(阿飡)에 이르렀는데, 아찬은 신라의 대관(大官)이었다. 게다가 현달(顯達)할 길이 바야흐로 끝나지 않았는데도, 공은 또 스스로 산림(山林)의 적막한 곳으로 나아가 배회하며 그 몸을 마치면서도 후회하지 않았다. 이는 대개 그 시대가 모두 뜻있는 일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사군자(士君子)가 몸을 세우고 도를 행함에 있어서는 출처(出處)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출처에 있어서 그 때를 잃지 않는 것은 현자(賢者)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현자가 지은 글이라면 당연히 세상에 전하지 않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인데, 더군다나 그 글이 저토록 걸출하고 또 동국(東國) 문장의 근본과 시조가 되는 데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호남 관찰사(湖南觀察使) 서공 준평(徐公準平 서유구(徐有榘))은 바로 내가 박아하고 글을 잘하며 옛것을 좋아하는 자라고 칭한 그 사람이다. 내가 이 글을 소장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얼른 가져다가 교열(校閱)한 뒤에 자기 봉록(俸祿)을 털어 활자로 인쇄해서 수십 백 본(本)을 만들어 널리 전파하려 하면서 "이 글이 동국(東國)에서 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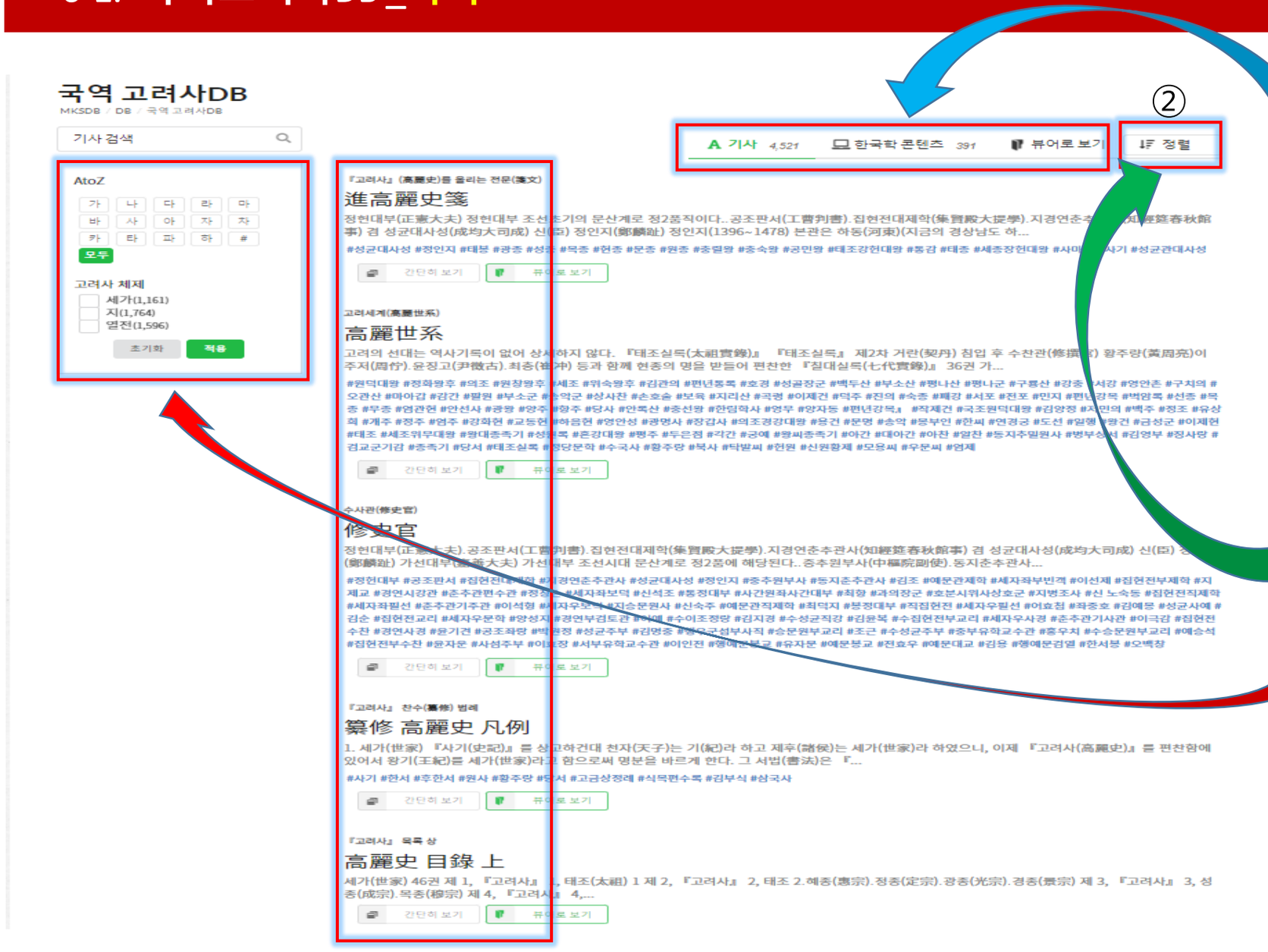
4-11. 한국역대문집DB _기사 화면



4-12. 한국역대문집DB _한국학 콘텐츠 화면



6-1. 국역고려사DB _목록



① **기사/한국학 콘텐츠/뷰어로 보기**

- **기사 :** 기사 단위로 목록을 보여줍니다.
- **한국학 콘텐츠 :** 국역 고려사DB와 관련된 학술논문을 국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를 중심으로 원문(Full-text) 을 확인할 수 있는 연계 서비스입니다.
- **뷰어로 보기 :** 국역고려사의 한글번역, 텍스트, 이미지 등을 동시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② **정렬 :** 클릭하면 날짜순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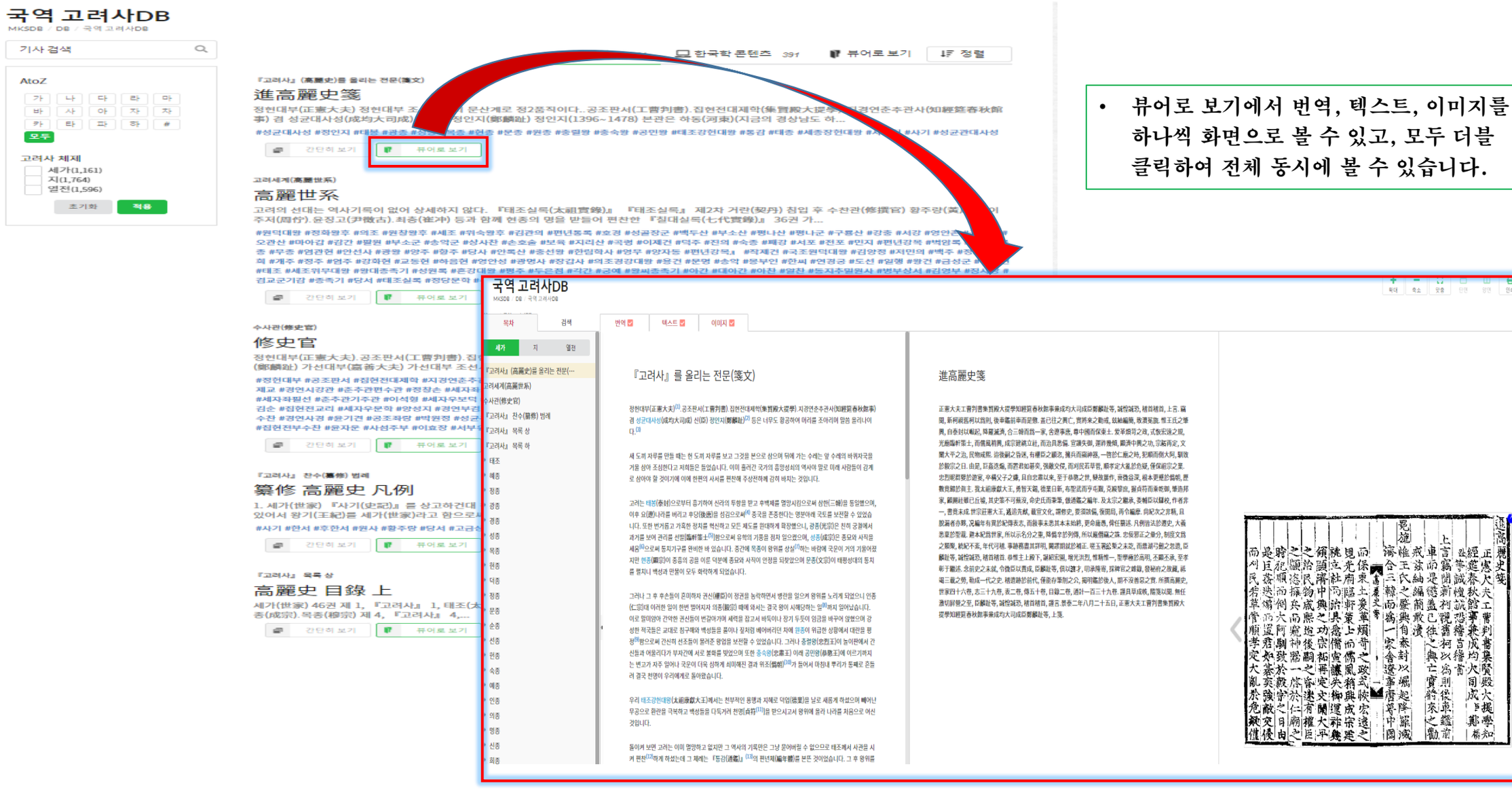
③ **필터/필터 적용 :** 목록을 가나다순이나 고려사 체제 세가, 지, 열전 등을 선택하여 적용을 클릭하면 원하는 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6-2. 국역고려사DB _간단히 보기



- 간단히 보기에서 한글번역, 텍스트, 이미지 순으로 아래 화면으로 전체 이어져 있지만 텍스트를 클릭하면 텍스트가 가장 앞 화면에 나타납니다.

6-3. 국역고려사DB _뷰어로 보기



- 뷰어로 보기에서 번역, 텍스트, 이미지를 하나씩 화면으로 볼 수 있고, 모두 더블 클릭하여 전체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6-4. 국역고려사DB _번역, 텍스트, 이미지 동시 보기

국역 고려사DB

MKSDB / DB / 국역 고려사DB

목차 | 검색

세가 | 지 | 열전

- 『고려사』 (高麗史)를 올리는 전문(…
- 고려세계(高麗世系)
- 수사관(修史官)
- 『고려사』 찬수(纂修) 범례
- 『고려사』 목록 상
- 『고려사』 목록 하
- 태조
- 혜종
- 정종
- 광종
- 경종
- 성종
- 목종
- 현종
- 덕종
- 정종
- 문종
- 순종
- 선종
- 헌종
- 숙종
- 예종
- 인종
- 의종
- 명종
- 신종
- 희종
- 강종
- 고종
- 원종
- 충렬왕
- 충선왕

번역 | 텍스트 | 이미지

『고려사』를 올리는 전문(箋文)

정헌대부(正憲大夫)[1] 공조판서(工曹判書) 집현전대제학(集賢殿大提學) 지경연춘추관사(知經筵春秋館事) 겸 성균대사성(成均大司成) 신(臣) 정인지(鄭麟趾)[2] 등은 너무도 황공하여 머리를 조아리며 말씀 올리나이다.[3]

새 도끼 자루를 만들 때는 헌 도끼 자루를 보고 그것을 본으로 삼으며 뒤에 가는 수레는 앞 수레의 바퀴자국을 거울 삼아 조심한다고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이미 흘러간 국가의 흥망성쇠의 역사야 말로 미래 사람들이 감계로 삼아야 할 것이기에 이에 한편의 사서를 편찬해 주상전하께 감히 바치는 것입니다.

고려는 태봉(泰封)으로부터 흥기하여 신라의 두항을 받고 후백제를 멸망시킴으로써 삼한(三韓)을 통일했으며, 이후 요(遼)나라를 버리고 후당(後唐)을 섬김으로써[4] 중국을 존중한다는 명분아래 국토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번거롭고 가혹한 정치를 혁신하고 모든 제도를 원대하게 확장했으니, 광종(光宗)은 친히 궁궐에서 과거를 보여 관리를 선발[臨軒策士][5]함으로써 유학의 기풍을 점차 일으켰으며, 성종(成宗)은 중묘와 사직을 세움[6]으로써 동치기구를 완비한 바 있습니다. 중간에 목종이 왕위를 상실[7]하는 바람에 국운이 거의 기울어졌지만 현종(顯宗)이 중흥의 공을 이룬 덕분에 종묘와 사직이 안정을 되찾았으며 문종(文宗)이 태평성대의 통치를 펼치니 백성과 만물이 모두 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후손들이 혼미하자 권신(權臣)이 정권을 농락하면서 병란을 일으켜 왕위를 노리게 되었으니 인종(仁宗)대 이러한 일이 한번 벌어지자 의종(毅宗) 때에 와서는 결국 왕이 시해당하는 일[8]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간악한 권신들이 번갈아가며 세력을 잡고서 바둑이나 장기 두듯이 임금을 바꾸어 앉혔으며 강성한 적국들은 교대로 침구해와 백성들을 풀이나 짚처럼 베어버리던 차에 원종이 위급한 상황에서 대란을 평정[9]함으로써 간신히 선조들이 물려준 왕업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충렬왕(忠烈王)이 놀이판에서 간신들과 어울리다가 부자간에 서로 불화를 빚었으며 또한 충숙왕(忠肅王) 이래 공민왕(恭愍王)에 이르기까지는 변고가 자주 일어나 국운이 더욱 심하게 쇠미해진 결과 위조(僞朝)[10]가 들어서 마침내 뿌리가 동째로 흔들려 결국 천명이 우리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태조강헌대왕(太祖康獻大王)께서는 천부적인 용맹과 지혜로 덕업(德業)을 날로 새롭게 하셨으며 폐어난 무공으로 환란을 극복하고 백성들을 다독거려 천명[貞符][11]을 받으시고서 왕위에 올라 나라를 처음으로 여신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고려는 이미 멸망하고 없지만 그 역사의 기록만은 그냥 묻어버릴 수 없으므로 태조께서 사관을 시켜 편찬[12]하게 하셨는데 그 체례는 『통감(通鑑)』[13]의 편년체(編年體)를 본뜬 것이었습니다. 그 후 왕위를 계승하신 태종(太宗)께서는 재상들에게 교정을 맡겼지만[14] 집필자가 한 사람이 아니었던 관계로[15] 책은 결국 완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세종장헌대왕(世宗莊憲大王)께서는 선왕(先王)의 뜻에 따라 문치(文治)를 펴시는 한편, 역사서를 편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사항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다시 사국(史局)을 열어[16] 편찬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이왕에 나온 고려역사는 시대별 순서가 정확하지 못하고 또 누락된 것이 많으며[17] 게다가 편년체는 본기(本紀), 열전(列傳), 연표(年表), 지(志)의 기전체와 차이가 있어 사실의 기록상 그 본말(本末)과 시종(始終)을 다 기록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하여 다시 저희들에게 찬술[18]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텍스트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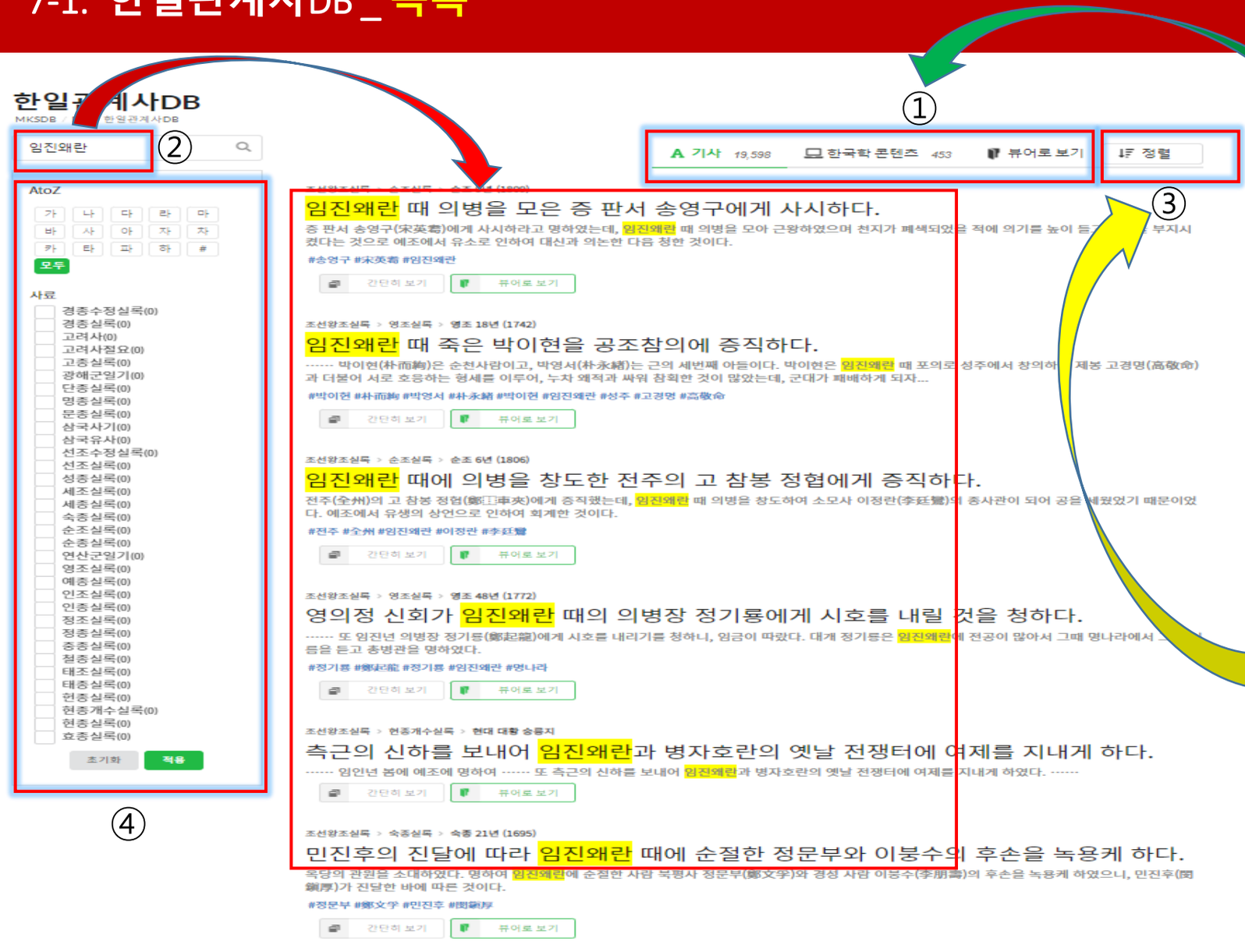
進高麗史箋

正憲大夫工曹判書集賢殿大提學知經筵春秋館事兼成均大司成臣鄭麟趾等, 誠惶誠恐, 稽首稽首, 上言. 竊聞, 新柯視舊柯以爲則, 後車鑑前車而足戒. 盖已往之興亡, 實將來之勸戒, 玆紬編簡, 敢瀆冕旒. 惟王氏之肇興, 自泰封以崛起, 降羅滅濟, 合三韓而爲一家, 舍遼事唐, 尊中國而保東土. 爰革煩苛之政, 式恢宏遠之規, 光廟臨軒策士, 而儒風稍興, 成宗建祧立社, 而治具悉備. 宣讓失御, 渥赧幾傾, 顯清中興之功, 宗祏再定, 文闈大平之治, 民物咸熙. 迨後嗣之昏迷, 有權臣之顓恣, 擅兵而窺神器, 一啓於仁廟之時, 弑順而倒大阿, 馴致於毅宇之日. 由是, 巨姦迭煽, 而置君如碁奕, 强敵交侵, 而刈民若草菅, 順孝定大亂於危疑, 僅保祖宗之業. 忠烈昵群婬於遊宴, 卒構父子之嫌, 且自忠肅以來, 至于恭愍之世, 變故屢作, 衰微益深, 根本更蹙於僞朝, 歷數竟歸於眞主. 我太祖康獻大王, 勇智天錫, 德業日新, 布聖武而亨屯艱, 克綏黎庶, 握貞符而乘乾御, 肇造邦家, 顧興社稷已丘墟, 其史策不可蕪沒, 命史氏而秉筆, 倣通鑑之編年. 及太宗之繼承, 委輔臣以讎校, 作者非一, 書竟未成. 世宗莊憲大王, 追先猷, 載宣文化, 謂修史, 要須該徧, 復開局, 再令編摩. 尙紀次之非精, 且脫漏者亦夥, 況編年有異於紀傳表志, 而敍事未悉其本末始終, 更命詮愚, 俾任纂述. 凡例皆法於遷史, 大義悉稟於聖裁. 避本紀爲世家, 所以示名分之重, 降僞辛於列傳, 所以嚴僭竊之誅. 忠佞邪正之筆分, 制度文爲之類聚, 統紀不紊, 年代可稽. 事跡務盡其詳明, 闕謬期就於補正. 噫玉署罕參, 秉之未竟, 而鼎湖弓劒之忽遺, 臣麟趾等, 誠惶誠恐, 稽首稽首. 恭惟主上殿下, 誕紹宏圖, 增光洪烈, 惟精惟一, 聖學極於高明, 不顯不承, 至孝彰于繼述. 念前史之未就, 令微臣以責成, 臣麟趾等, 俱以頑才, 叨承隆寄, 採稗官之雜錄, 發秘府之故藏, 祖竭三載之勞, 勒成一代之史. 稽遺跡於前代, 僅能存筆削之公, 揭明鑑於後人, 期不沒善惡之實. 所撰高麗史, 世家四十六卷, 志三十九卷, 表二卷, 傳五十卷, 目錄二卷, 通計一百三十九卷. 謹具草成帙, 隨箋以聞. 無任激切屛營之至, 臣麟趾等, 誠惶誠恐, 稽首稽首, 謹言. 景泰二年八月二十五日, 正憲大夫工曹判書集賢殿大提學知經筵春秋館事兼成均大司成臣鄭麟趾等, 上箋.

이미지 화면



7-1. 한일관계사DB _ 목록



① **기사/한국학 콘텐츠/뷰어로 보기**

- **기사 :** 기사 단위로 목록을 보여줍니다.
- **한국학 콘텐츠 :** 한일관계사DB와 관련된 학술논문을 국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를 중심으로 원문(Full-text) 을 확인할 수 있는 연계 서비스입니다.
- **뷰어로 보기 :** 한일관계사의 한글번역, 이미지 등을 동시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② **키워드 검색 :** 검색 란에 찾고자 하는 자료의 키워드를 입력하면 목록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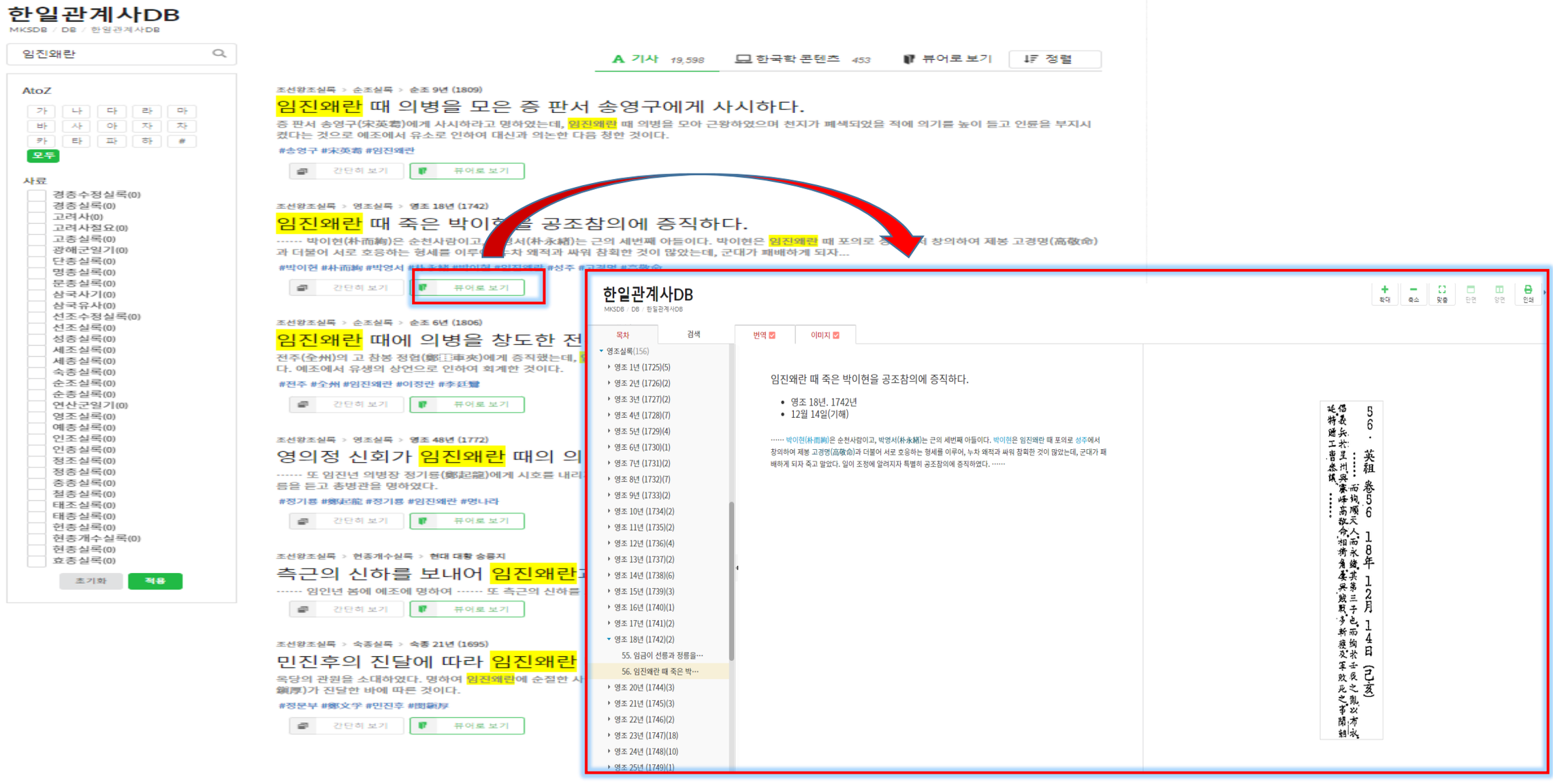
③ **정렬 :** 클릭하면 날짜순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④ **필터/필터적용 :** 목록을 가나다순이나 사료 등을 선택하여 적용을 클릭하면 원하는 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7-2. 한일관계사DB_ 간단히 보기



7-3. 한일관계사DB_뷰어로 보기



7-4. 한일관계사DB_한글번역, 이미지 동시 보기

한일관계사DB

MKSDB / DB / 한일관계사DB

확대 축소 맞춤 단면 양면 인쇄

목차 | 검색 | 번역 |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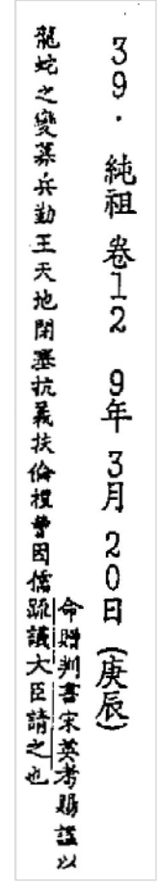
- 정조실록(132)
- 순조실록(112)
  - 순조 즉위년 (1800)(2)
  - 순조 1년 (1801)(2)
  - 순조 2년 (1802)(2)
  - 순조 3년 (1803)(3)
  - 순조 5년 (1805)(4)
  - 순조 6년 (1806)(9)
  - 순조 7년 (1807)(7)
  - 순조 8년 (1808)(6)
  - 순조 9년 (1809)(9)
    - 36. 좌의정 김재찬이 임란…
    - 37. 대마도주가 빙례를 대…
    - 38. 왜역이 바다를 건너갈…
    - 39. 임진왜란 때 의병을 …
    - 40. 좌의정 김재찬이 부특…
    - 41. 동래부사가 역지통사…
    - 42. 대마도주가 역지통빙…
    - 43. 대마도와의 폐단에 대…
    - 44. 도해역관 현의순 등이…
  - 순조 10년 (1810)(15)

임진왜란 때 의병을 모은 증 판서 송영구에게 사시하다.

- 순조 9년. 1809년
- 3월 20일(경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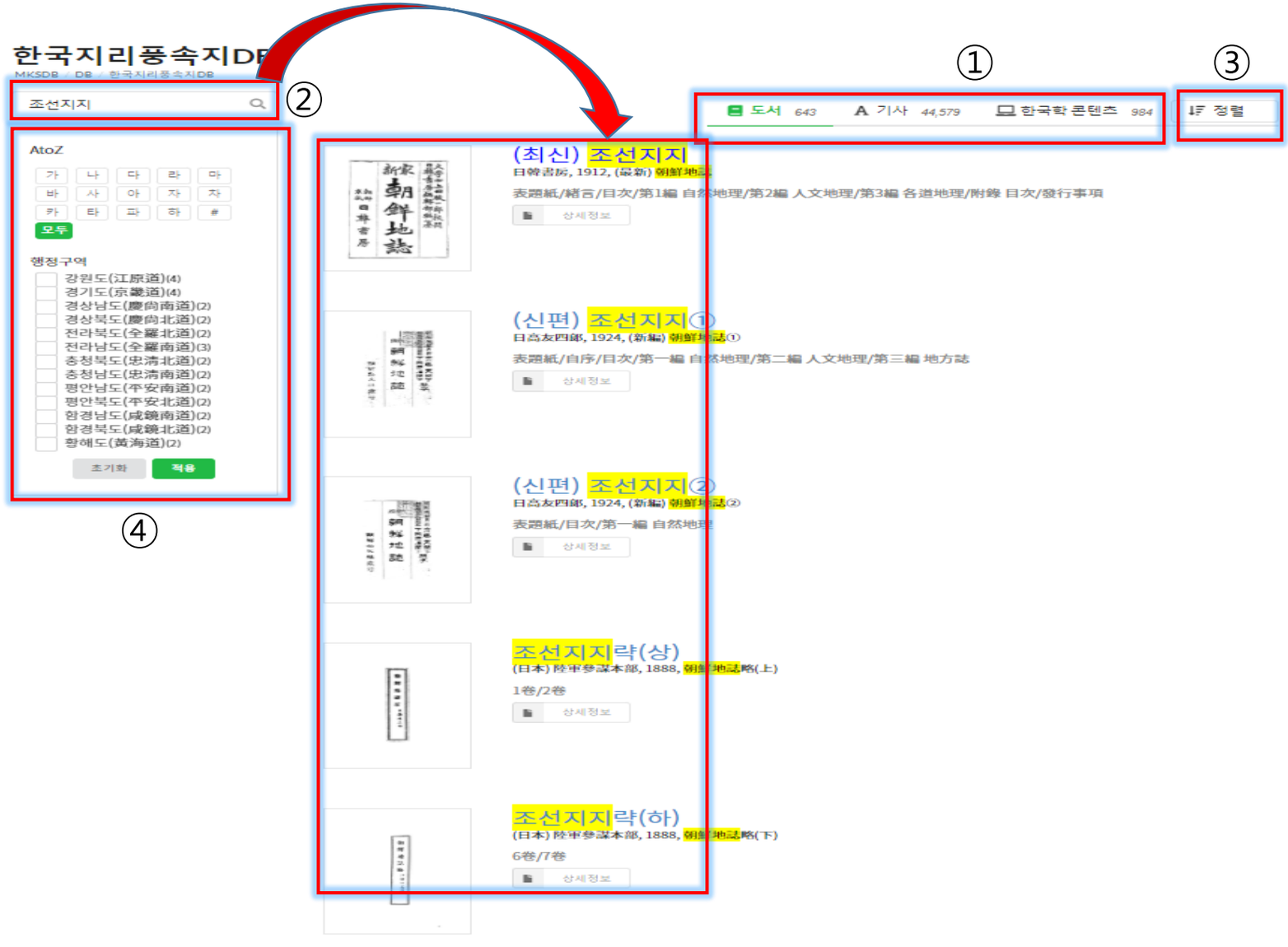
증 판서 송영구(宋英耉)에게 사시하라고 명하였는데, 임진왜란 때 의병을 모아 근왕하였으며 천지가 폐색되었을 적에 의기를 높이 들고 인륜을 부지시켰다는 것으로 예조에서 유소로 인하여 대신과 의논한 다음 청한 것이다.

이미지 화면



1/1

8-1. 한국지리풍속지DB _목록 보기



① **도서/기사/한국학 콘텐츠**

- **도서 :** 도서 표지를 목록으로 보여줍니다.
- **기사 :** 기사 단위로 목록을 보여줍니다.
- **한국학 콘텐츠 :** 한국지리풍속지DB와 관련된 학술논문을 국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를 중심으로 원문(Full-text) 을 확인할 수 있는 연계 서비스 입니다.

② **키워드 검색 :** 검색 란에 찾고자 하는 자료의 키워드를 입력하면 목록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③ **정렬 :** 클릭하면 도서, 저자, 발행년 중에서 선택하면 가나다순 또는 발행년 순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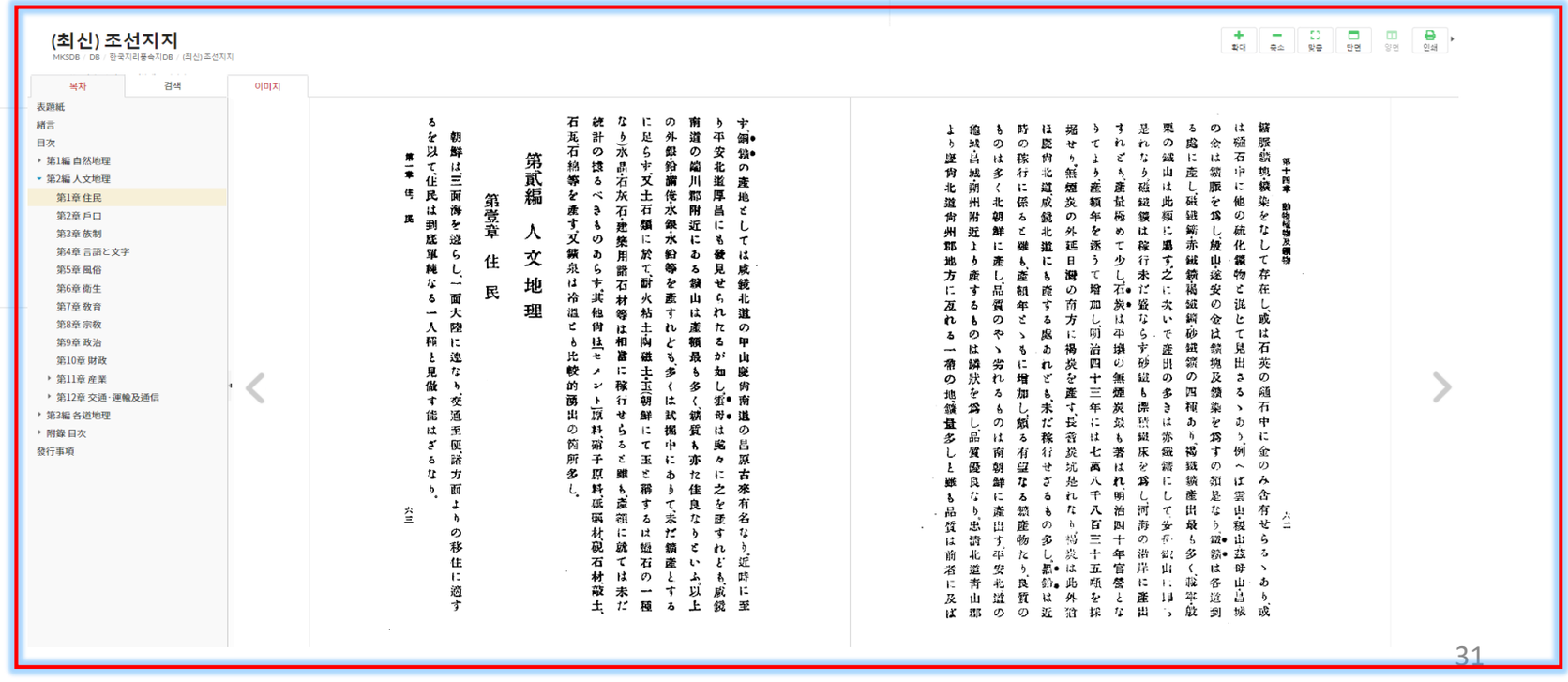
④ **필터/필터 적용 :** 목록을 가나다순이나 행정구역 등을 선택하여 적용을 클릭하면 원하는 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8-2. 한국지리풍속지DB _도서목록 표지 보기 및 상세정보



8-3. 한국지리풍속지DB _상세정보에서 원문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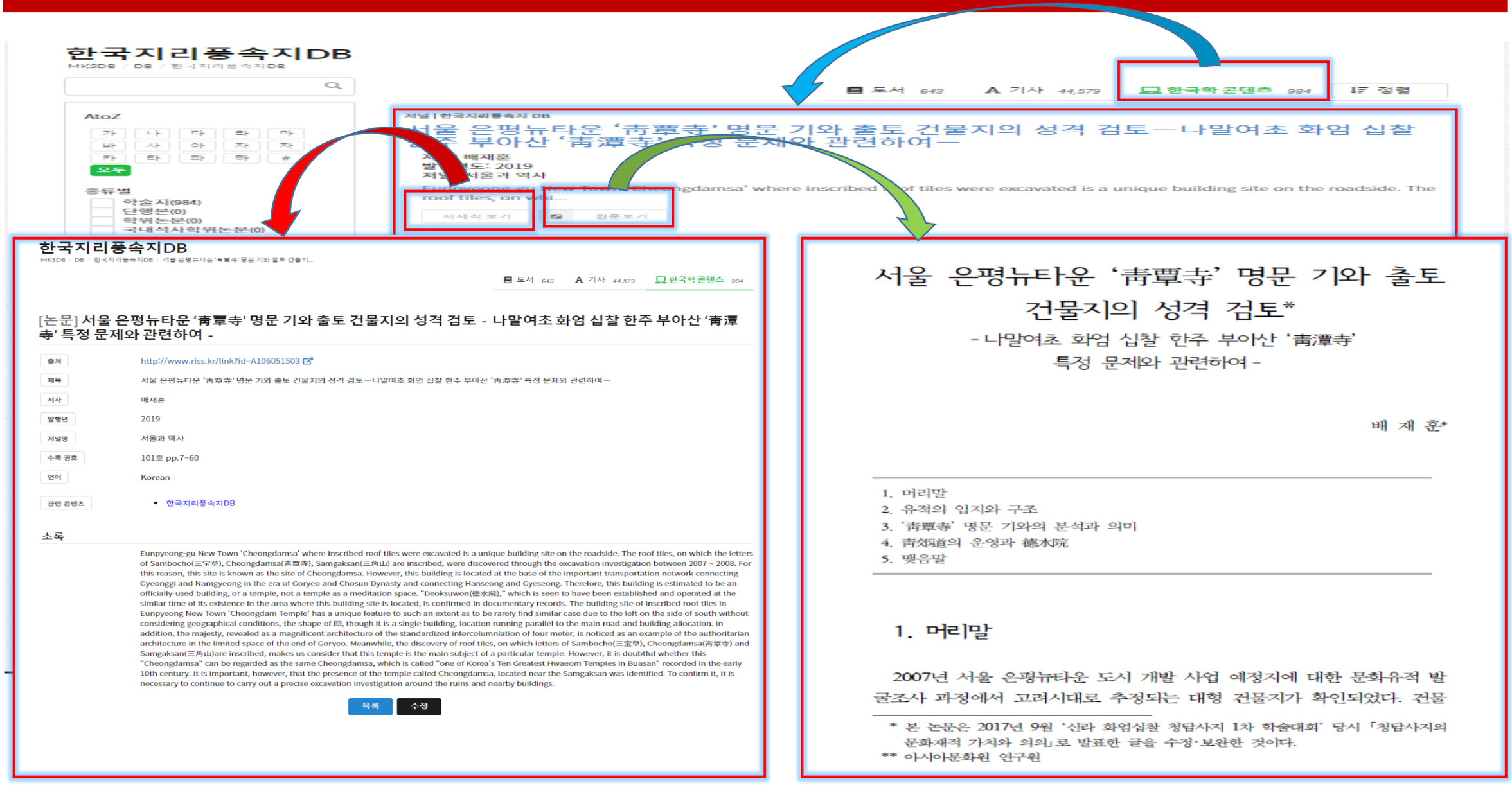




8-4. 한국지리풍속지DB_ 기사로 보기



8-5. 한국지리풍속지DB_한국학콘텐츠 원문보기



9-1. 만몽지리풍속지DB _기본목록 검색



① **도서/기사/한국학 콘텐츠**

- **도서 :** 도서 표지를 목록으로 보여줍니다.
- **기사 :** 기사 단위로 목록을 보여줍니다.
- **한국학 콘텐츠 :** 한국지리풍속지DB와 관련된 학술논문을 국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를 중심으로 원문(Full-text) 을 확인할 수 있는 연계 서비스 입니다.

② **도서명 검색 :** 검색 란에 찾고자 하는 자료를 입력하면 목록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③ **정렬 :** 클릭하면 도서, 저자, 발행년 등이 나타나고 선택하면 도서, 저자는 가나다순, 발행년은 발행년 순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④ **필터/필터적용 :** 목록을 가나다순에서 선택하여 적용을 클릭하면 원하는 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9-2. 만몽지리풍속지DB – 키워드 검색 목록



① **키워드 검색 :** 검색 란에 찾고자 하는 자료의 키워드를 입력하면 목록으로 나타납니다. 화면과 같이 만몽을 입력하면 목록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② **정렬 :** 클릭하면 도서, 저자, 발행년 등이 나타나고 선택하면 도서, 저자는 가나다순, 발행년은 발행년 순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③ **필터/필터적용 :** 목록을 가나다순에서 선택하여 적용을 클릭하면 원하는 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9-3. 만몽지리풍속지DB – 상세정보 검색

만몽지리풍속지DB

MKSDB / DB / 만몽지리풍속지DB

만몽

AtoZ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
모두

초기화 적용

도서 251 기사 28,093 한국학 콘텐츠 951 정렬
도서
저자
발행년



만몽의 지식
金壁 東, 1934, 滿蒙の

表題紙/目次/[illegible]章 緒言/第二章 滿蒙の歷史的沿革/第三章 滿蒙の地形氣[illegible]章四章 滿蒙の住民/第五章 風族習慣/第六章[illegible]/第七章 滿洲國の政府組織/第八章 産業/第九章 電氣事業/第十[illegible]勞働事情/第十一章 交通運輸/第十二章 財[illegible]第十三章 滿洲國に於ける經濟統制の 範圍及方法/第十四章 滿洲[illegible]/第十五章 教育/第十六章 國都事情/[illegible]七章 國都建設計畫/結論/發行事項

상세정보



만몽유기
與謝野寛, 1930, 滿蒙遊記

表題紙/滿蒙遊記の初めに/滿蒙遊[illegible]
滿蒙の歌 其二/滿蒙遊草 漢詩/發[illegible]

상세정보



만몽여행
李 軫鎬, 1927, 滿蒙の旅

表題紙/書誌情報/目次/はしがき/[illegible]
び/發行事項

상세정보



여명의 만몽
川上隆正, 1933, 黎明の滿蒙

表題紙/序/はしがき/再版に際し[illegible]
六 奉天附近/七 古力生活/八 公主[illegible]
三 四平街へ/一四 齊々哈爾雜觀/[illegible]
二〇 安東情緒/二一 故郷平壌/二[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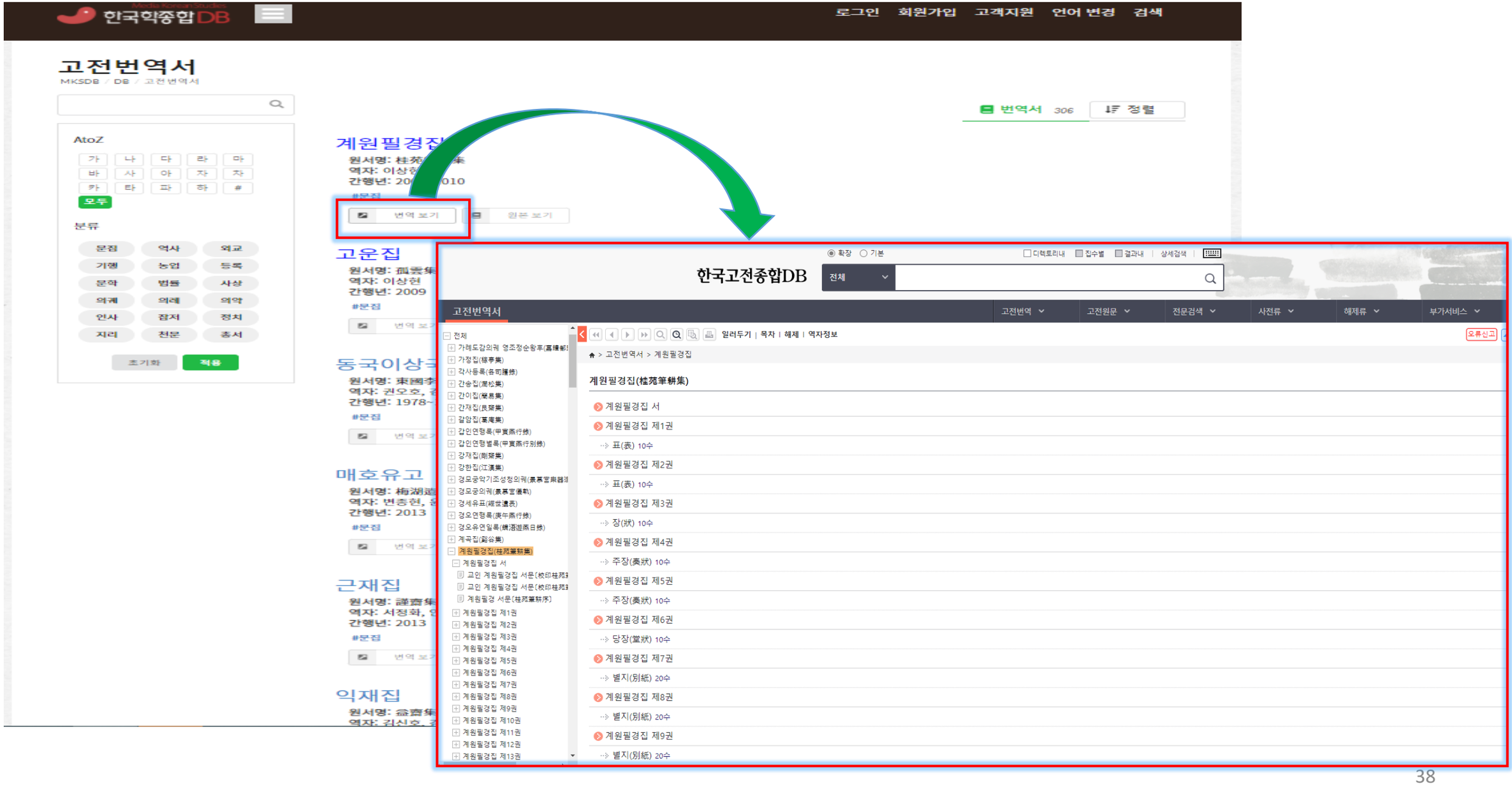
상세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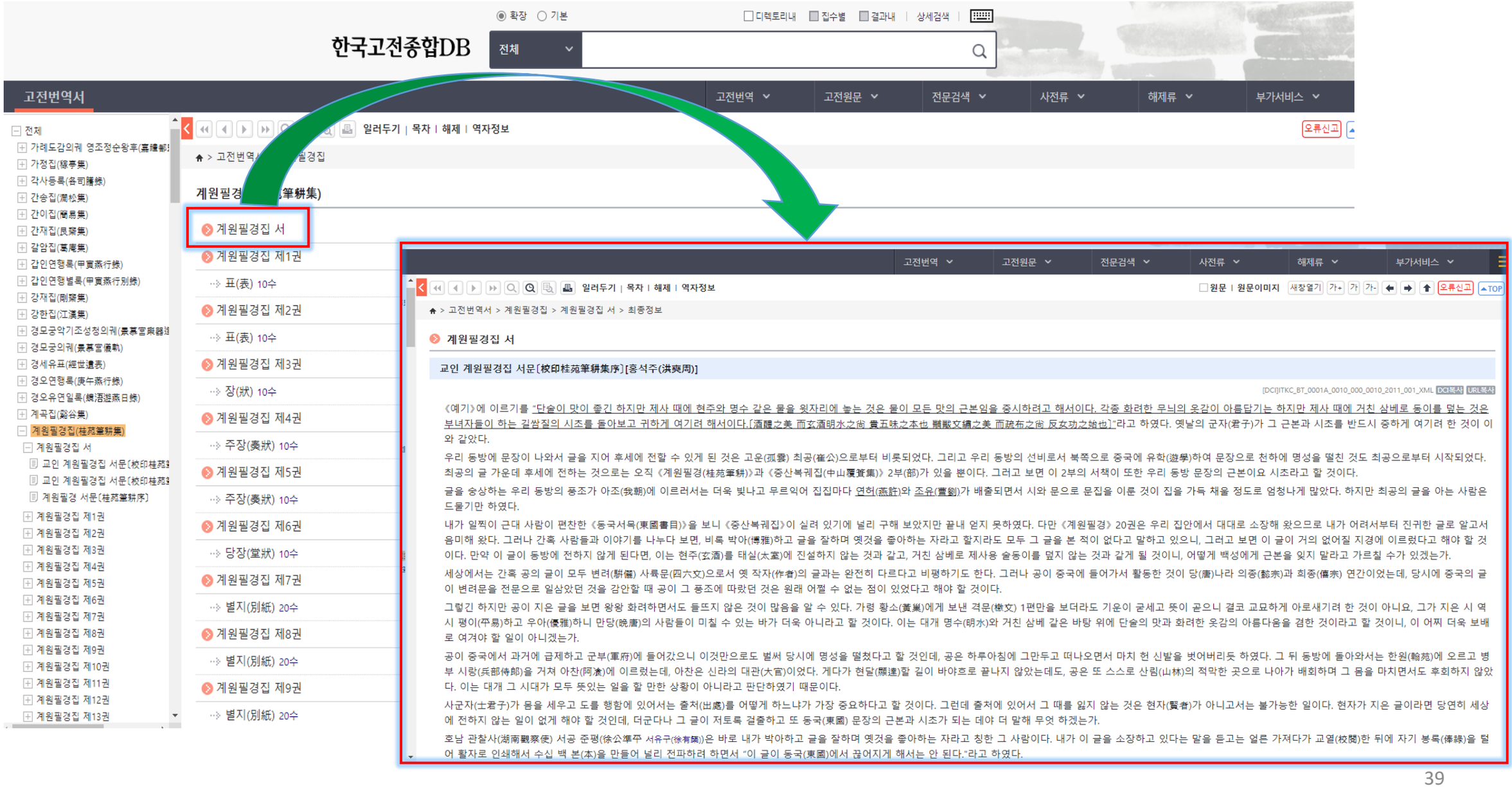
9-4. 만몽지리풍속지DB – 원문이미지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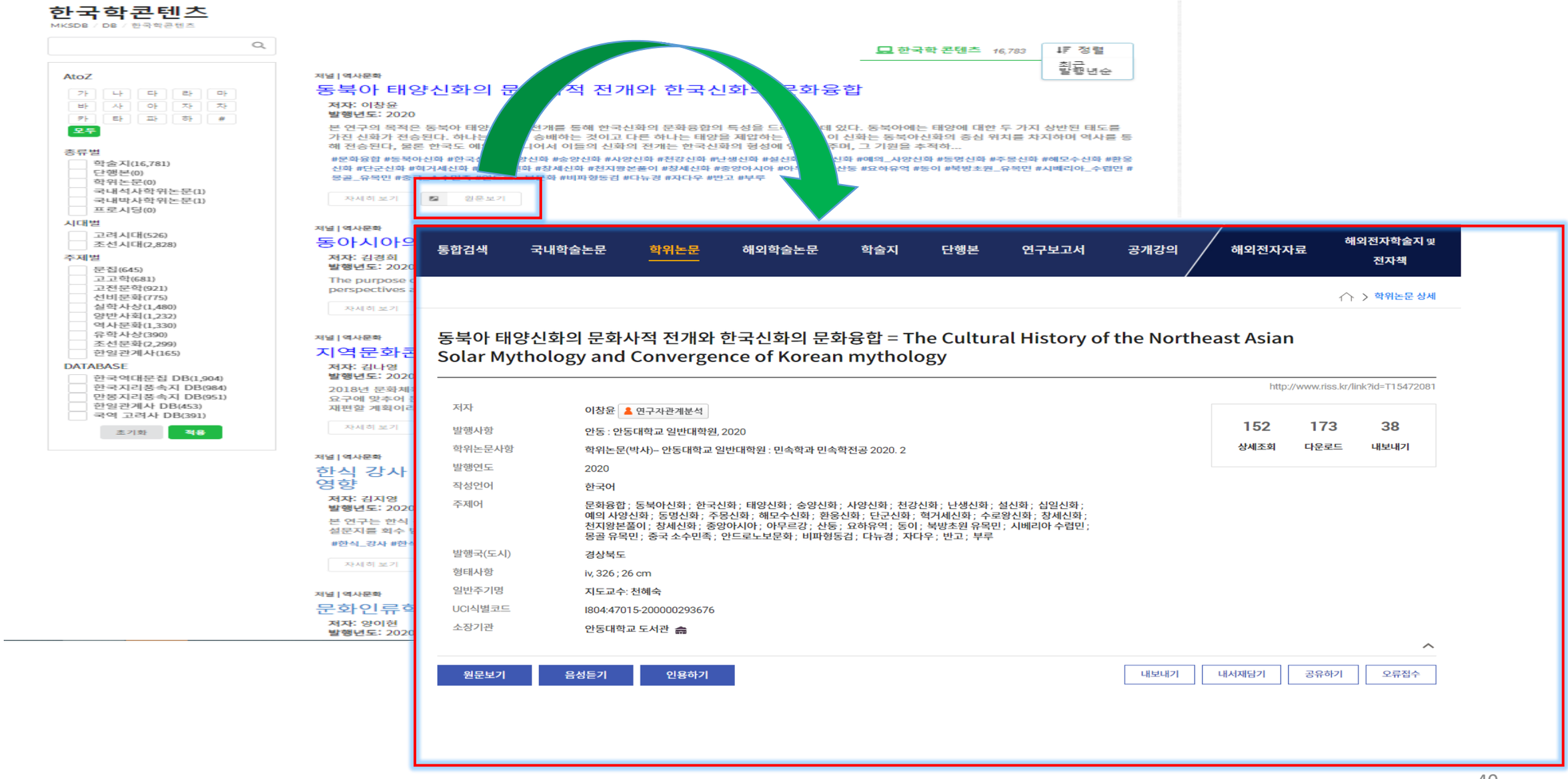
10-1. 고전번역서DB_ 목록검색 및 번역보기



10-2. 고전번역서DB_ 한국고전종합DB 연결 및 원문보기



11-1. 한국학 콘텐츠 _목록 및 연계사이트



11-2. 한국학 콘텐츠_ 원문보기

통합검색 | 국내학술논문 | 학위논문 | 해외학술논문 | 학술지 | 단행본 | 연구보고서 | 공개강의 | 해외전자자료 | 해외전자학술지 및 전자책

학위논문 상세

동북아 태양신화의 문화사적 전개와 한국신화의 문화융합 = The Cultural History of the Northeast Asian Solar Mythology and Convergence of Korean myth

http://www.riss.kr/link?id=T15472081

저자	이창윤 연구자관계분석
발행사항	안동 : 안동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안동대학교 일반대학원 : 민속학과 민속학전공 2020. 2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문화융합; 동북아신화; 한국신화; 태양신화; 숭앙신화; 사앙신화; 천강신화; 난생신예의 사앙신화; 동명신화; 주몽신화; 해모수신화; 환웅신화; 단군신화; 혁거세신화; 천지왕본풀이; 창세신화; 중앙아시아; 아무르강; 산둥; 요하유역; 동이; 북방초원 유목골 유목민; 중국 소수민족; 안드로노보문화; 비파형동검; 다뉴경; 자다우; 반고;
발행국(도)	경상북도
형태사항	iv, 326 ; 26 cm
일반주기	지도교수: 천혜숙
UCI	I804:47015-200000293676
소장기관	안동대학교 도서관

원문보기 | 음성듣기 | 인용하기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태양신화를 동북아라는 보다 넓은 문화사적 맥락 속에서 고찰해 봄으로써 그것이 동북아의 보편적 문화의 연계선 상에 있음을 확인하고 나아가 그 속에서 한국신화만이 가지는 문화융합적 특성을 드러내는 데 있다. 하나의 텍스트가 특정 맥락 속에 들어갈 때 의미가 규정되거나 분명해지는 것처럼 한국신화도 동북아라는 보다 넓은 원류의 맥락에서 보면 그 보편성과 특성이 함께 드러날 수 있다. 그것은 맥락을 달리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으로 거기에는 한국신화를 새롭게 바라보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한국신화 중에서도 특히 태양신화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특히 태양신화에 문화융합의 특성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한국신화를 둘러싼 맥락으로서 동북아신화들은 일찍부터 동북쪽의 아무르강을 중심으로 한 시베리아 수렵민의 문화, 서북쪽의 북방초원 유목민의 문화, 서남쪽의 중국 농경민의 문화 등 나름의 순도 높은[1] 문화를 바탕으로 형성된 신화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한국신화의 문화융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태양신화는 농경문화에 기반을 둔 것으로 그 형성 과정은 문화사의 고찰을 통해서 비로소 드러날 수 있다. 가령 동북아에서 가장 먼저 농경이 발달한 곳은 중국이다. 중국은 도작(稻作)인 화남(華南)과 속작(粟作)인 화북(華北)으로 나뉘는데,[2] 화북은 황하유역에서 가장 오래된 농경문화로서 기원전 6천년기,[3] 화남은 기원전 5천년기 허무두문화[4]로 오래된 연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농경문화권에서 태양신화가 가장 먼저 등장한 곳은 산둥으로 황하 하류인데,[5] 이곳은 당시 동이가 활동하던 지역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신화의 등장에 대한 확인이 아니라 그 배경인 문화사적 흐름을 분석하여 한국신화의 문화융합 현상을 규명해 내는 것이다.

1) 여기에서 '순도 높은'은 한국신화의 '문화융합'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2) 안승모, 『東아시아 先史時代의 農耕과 生業』, 학연문화사, 1998, 209~230쪽, 참조.
3) 위의 책, 210쪽.
4) 위의 책, 224쪽.
5) 산둥에서 등장한 태양신화는 상(商)의 십일신화와 시조신화로서 그 과정에 대해서는 본론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 1 –



감사합니다

미디어한국학 MEDIA KOREAN STUDIES

Media Korean Studies 한국학종합DB

이용 문의

전　화 : 031-955-9314

이메일 : mks@kyunginp.co.kr